긴 꼬리 호랑이와
인간을 닮은 동물들의 경영우화
글_박성진 그림_김청기
씨엔씨·레볼루션
아마조네스 2
TLT season Ⅱ

김정기(그림)

1975년 생
'퍼니퍼니'(영점프) 연재
한일만화교류전(2003)
단편 '산책' (계간만화)발표(2004)
'곰TV'TV CF작업(2006)
「2007 sketch collection」출간(2007)
'애니 창아' 미술학원 원장
홈페이지 www.superani.com

한 시즌을 마감하고, 또 한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책이 나올 때마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동물들이
사회라는 정글에서 전쟁을 벌이는 모습,
계속 기대해 주십시오.

박성진 (글)

1967년 생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졸
서울대 전자공학과 석사과정 중퇴
만화 스토리와 함께 무협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휴머닉 대표이사이다.

가끔 태호가 제가 만든 이야기 속 인물인지,
제가 태호의 게임 속 인물인지 헷갈립니다.

박영조 · 김영빈(컬러)

긴 꼬리 호랑이와 인간을 닮은 동물들의 경영 우화

아마조네스

TLT 시즌 Ⅱ

TLT 시즌 Ⅱ

아마조네스 2

1쇄 인쇄 2010년 12월 10일
1쇄 발행 2010년 12월 15일

글 박성진 · 그림 김정기

펴낸이 이재식
편 집 이명진
디자인 신인아
펴낸곳 씨엔씨 레볼루션(주)

등록번호 제 16-2597호
등록일자 2001년 12월 29일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센터 4층 403호
전 화 070-8677-5333
팩 스 032-326-1940
인 쇄 (주)코리아피앤피

ISBN 978-89-90046-65-9 07650
ISBN 978-89-90046-48-2 07650(세트)

가격 9,500원

〈TLT〉 시즌2는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SBA)와 한국문학번역원이
공동 주최한 '2009 해외수출 기획만화 제작지원공모'에 선정되어 만화 콘텐츠와 책 제작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마조네스 2

TLT 시즌 Ⅱ

글 박성진 그림 김정기

Revolution

1년 후
AIG
으응, 그래.
지금 가고 있다니까. 그래, 알았어, 거기서 만… 응?
덜컹
끼이이익
쾅쾅
콰과광

피쉬쉬쉬쉭
…꿈?
내일 맞지?
삐
네, 회장님.
양복을 따로
준비할까요?

…….

아니, 내가
준비해 둔 게 있어.
그거면 돼.

참, 바보 호랑이는 어떻게 됐어?
이제 슬슬 숙제를 결산할 때가
온 것 같은데 말이야.

태호 씨 말이시죠?
후훗

타앙

우당탕

더 재밌는 걸
보여 드릴까요?
스포츠 용품
전시회의 꽃,
하이라이트!

새로운
불사조, 네피
입니다아!
쉭
쉭

앞으로 타는 즐거움.
밟아주기만 해도 전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드!

와아아아!
와아아아!
여러분!
강태호가
선보입니다!

와아!
오!
하압
회장님의 숙제를 맡은 지 1년.
내일은 주양의 결혼식.
그리고 나는 지금 스포츠 용품 전시회에 있다.

와아아아아아아!
촤르르륵

!

레이첼!

저, 저어!
위험해!

착!

인버스 브레이크를 완성했군요.
정말로 그 자리에서 멈추네요.

멈추기 싫습니다.

네?

아, 제 말은…
긁적

잘 왔습니다.
네피의 인기.
보이시죠?
느껴지시죠?

자아, 오신 김에 공연도 좀…
다섯 대만 팔고 가시면… 흐흐,
맛난 저녁을 사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보자셔요.
!
숙제가 완성됐는지
보고 받고 싶으시대요.
지이익
이상해요,
사장님. 분명히
인기는 최고인데,
생각보다 팔려나간 건
없어요. 아무리
전시회 행사라곤 해도….
…….
저야, 알바생이니까
그냥 돈만 받으면 되지만….
아마, 처음 보는 물건이라
낯설어서 그럴 거예요.
먼저 퇴근할게요.

정말로 그럴까?
낯설어서?
옆으로 타는 보드만 보다가,
앞으로 타는 네피가 낯설어서?
B1
빵빵
부우웅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실 거
같아요?
그게….
거기군요.

거기 맞아요.

으으음.
저어기 말이죠….
네?

보고 마치고,
둘이서 한잔 할까요?
내일은 좋은 날이잖습니까?

글쎄요. 둘이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가능?
이건 또 무슨 소리?

그래, 마시는 거다!
마음껏 마시는 거다!
위하여!

주앙, 스텔라.
내, 내일 결혼식 준비 안 하고
왜 여기 있어? 불독까지…?!

호호. 둘이서 마시긴
좀 어렵겠네요.
그쵸?
아, 네에.
네놈이
왜 거길 앉아?
차렷!
아직 네놈에겐 자격이 없어!
거기 앉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저, 저는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저 영감 말은
무시해.
!
우선은 한 잔!
이 정도도
못 마신다면
남자의 자격이 없지,
안 그래?
아! 자격요!
퐃!
남자의 자격은 합창을
해야 생기는… 으음.

꿀꺽
꿀꺽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군,
마담 살로메. 그 말로 사내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재주는.
흥

시간이 지나도
여전한 건 사내들이지.
이런 말에 발끈해 술을 마시는 건
늙으나 젊으나.
호호호!

우리들의 시대는 가고,
젊은 녀석들의
시대이기 때문일까?
요즘은 옛 생각이 많이 나.

꺼억

마담 가이아의 젊은 시절은 어땠을까?

회장님과 크로단 이사의 젊은 시절은?
!

뭘 봐? 부동산에서 내가 보란
세 가지가 뭐였지?
탁
공간을 보라. 시간을 보라.
그리고 아니만을 보라…
였습니다.
거기 남의 옛 사진을 훔쳐 보라,
라는 말이 있어, 없어?
어,
없습니다.
결혼식에 일찍 와, 강태호!
와서 보고해.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앞으로 날 볼 일이 없을 줄 알도록.
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도 하지. 회장님은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꿀꺽
꿀꺽

태호 이 자식. 부조계 보라니까
어디서 뭘 하는 거야?

마담 가이아의 첫 번째 요구는
시간을 보란 것이었습니다.

그건, 부동산의 역사를
보란 의미였죠.
현재의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가, 월세가가 과거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변해 왔는지를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란 것이었습니다.

물론 미래도 봐야 했습니다.
부동산, 조세, 금리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 영향을 파악해야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즉 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을 보라고
했습니다. 중심가에서,
혹은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자동차로, 버스로, 전철로,
또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발전 가능성은 어떤지?

어디와 어디가 붙어 있고, 길이 어떻게 뚫려
있으며 어떻게 뚫릴 것인지.

심지어 동네의 이름이나
행정구역도 중요하더군요.

시간과 공간 다음은?

마담 가이아는 '아니만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전 그 말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긁적

한 번에 알아들으면 너답지 않지.

끄응!

그래서 어떻게 했어? 못 알아들어서 그냥 가만있었나?

아무 것도 안 하는 놈이 가장 큰 멍청이라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잖습니까? 저만의 방법을 썼습니다.

너만의 방법?

백수 좋은 점이 뭡니까? 시간 있을 때,
시간 없을 때도 무조건 아파트를 돌았습니다.
착
착

부동산을 알고,
네피도 알리구요.
차르르르르

태워달라 졸라대는 아이들, 부모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네피 어떠냐? 동네는 어떠냐? 이 동네 계속 살고 싶으냐?
…….

결국 한 아파트를 찜했습니다. 거기 사는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좋아했어요.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이사 나가고 싶어 하는 아줌마 아니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끝없이 멍청한 놈. 부동산을 사는 데 아줌마들 의견만으로 결정을 해?

전철에다 새로운 길, 대형 상가 등의 호재도 그 아파트에는 있었습니다. 그치만 결국 아파트란 사는 곳이잖습니까?

사는 사람이 이사 나가기 싫어 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요.

그래서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1억이 2억 2천으로.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운이 나빴다.
예?

최상의 경험은 실패야. 실패는 자신의 단점을
알려주지. 그런데 넌 실패하지 못했어.
시절이 나빴어. 저 금리에 공급 부족.
집 값이 터질 요인이 잔뜩 모여 있었으니까.
…….
그걸 아시고 일부러 저한테 그런 숙제 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묻고 싶은 걸 꾹 참았다.
운으로 버텨가는 녀석은 넘어질 때
가장 아프게 넘어져. 내 말뜻 알겠나?

헤헷~♥

!

왜 자꾸 실실 거리며 웃어?

좋아보여서요.

역시 회장님의
지금 같은 모습이 좋습니다.
…….
어젯밤,
왠지 이상하셨거든요.

아야얏!
왜 때립니까?
파악

내려가자.
식 시작되겠다.

아무튼
이것으로
버스 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은
얻은 거죠?

착각하지 마. 쫓겨날 신세만
겨우 면했으니까.

부러운 자식, 주앙.
샥
!
나도 곧…
흐흐흐.
꼬옥
이것 봐. 곧이라니까, 곧….
픗

어라라, 근데~
왜 주앙 아버지의 자리에
회장님이? 서, 설마…

주앙까지 양자로
들이신 건 아니죠, 네에?

부케
갑니다아!

휘익

퍽
타이거 엘보우!

까야…
타이거 머리끄댕이!

으윽
타이거 안면 밀치기!!

나이스 캐치. 부케 받고
여섯 달 안에 애인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척

자아, 입 크게 벌리고
웃으세요!
스탑!!
그건 안 돼요!
주앙은….
하나, 둘….
자, 찍습니다!
번쩍
아…
김치이~
신혼여행 잘 다녀와라.
가서 변신은 하지 말고,
알았지?
히히힛!
음흉스런 자식~!
먼저 갑니다.
저녁때 집에서 뵐게요.

집에서 뵐게요. 아아, 어감 좋다.
모르는 녀석들은 딴 생각 하겠지?

!
끼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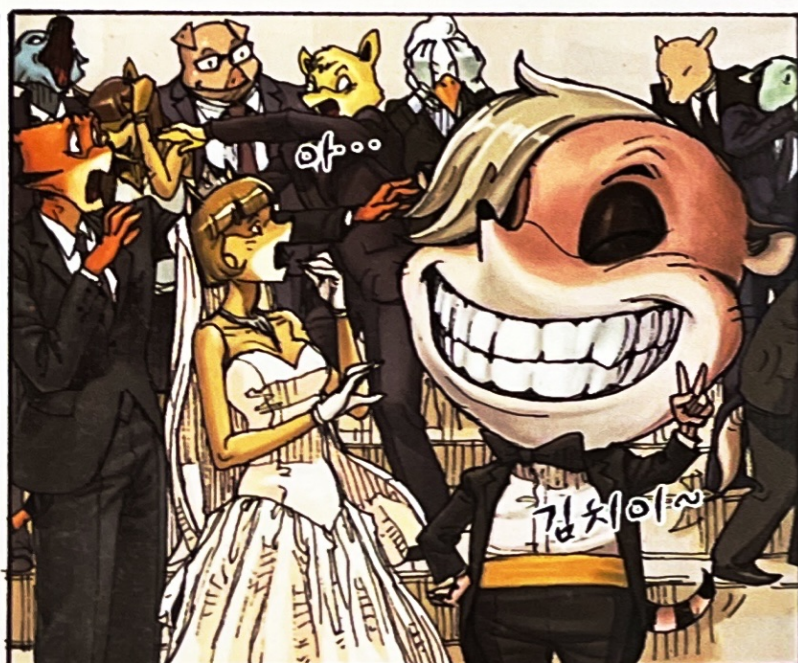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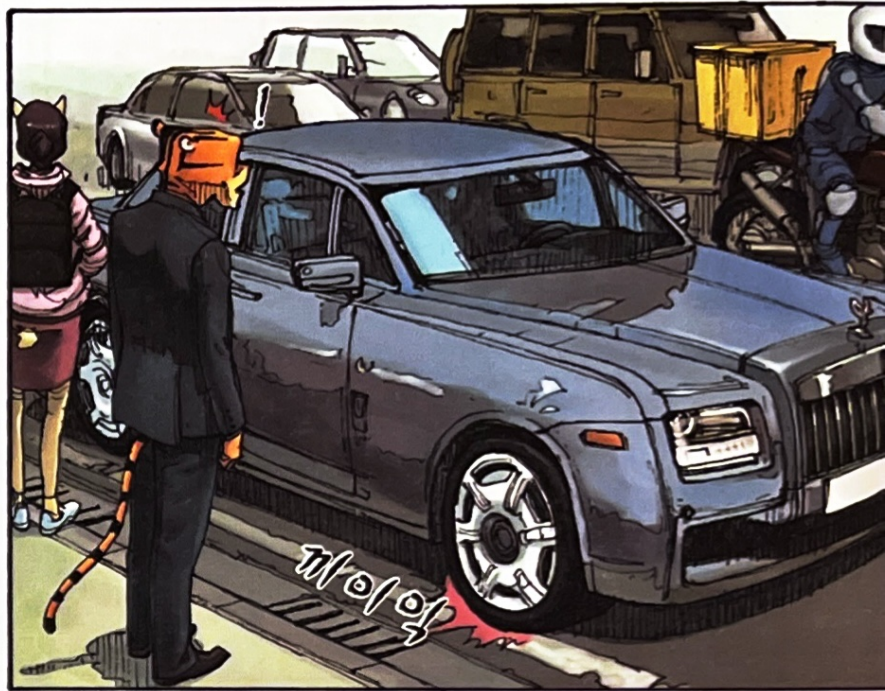
회장님.

… 레이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예?

…아, 예에….
그러니까 예쁘고,
때론 차갑지만
주로 부드럽고,
현명하고
능력이 있으며…

한 마디로
내 딸답지?
예? 아, 예에.
회장님의
딸답습니다.

네놈과 어울린다
생각해?

그, 그건….

드래곤과 아미고는
지금 아니메리카에서 수 조의
돈을 쌓아가고 있어.
네 녀석은 뭘 하지?
세계 정복의 꿈은 말뿐이었던 거냐?

회장님의 숙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피도 개발했구요.

숙제와 장난감.
멍청이 주제치곤
꽤 많이 했군.
그래서 얼마나 벌었어?
찌릿

부동산 돈이야
회장님 드렸고,
네피는… 아직입니다.

회장님께 흡족하지 않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누구건
도약을 위해 웅크릴 때가
필요합니다.
나츠메만 해도 PC방에서….

그래, 나츠메!

레포츠 용품 전시회 옆쪽에
게임 전시회가 열리고 있을 거야.
거기에 나츠메가 나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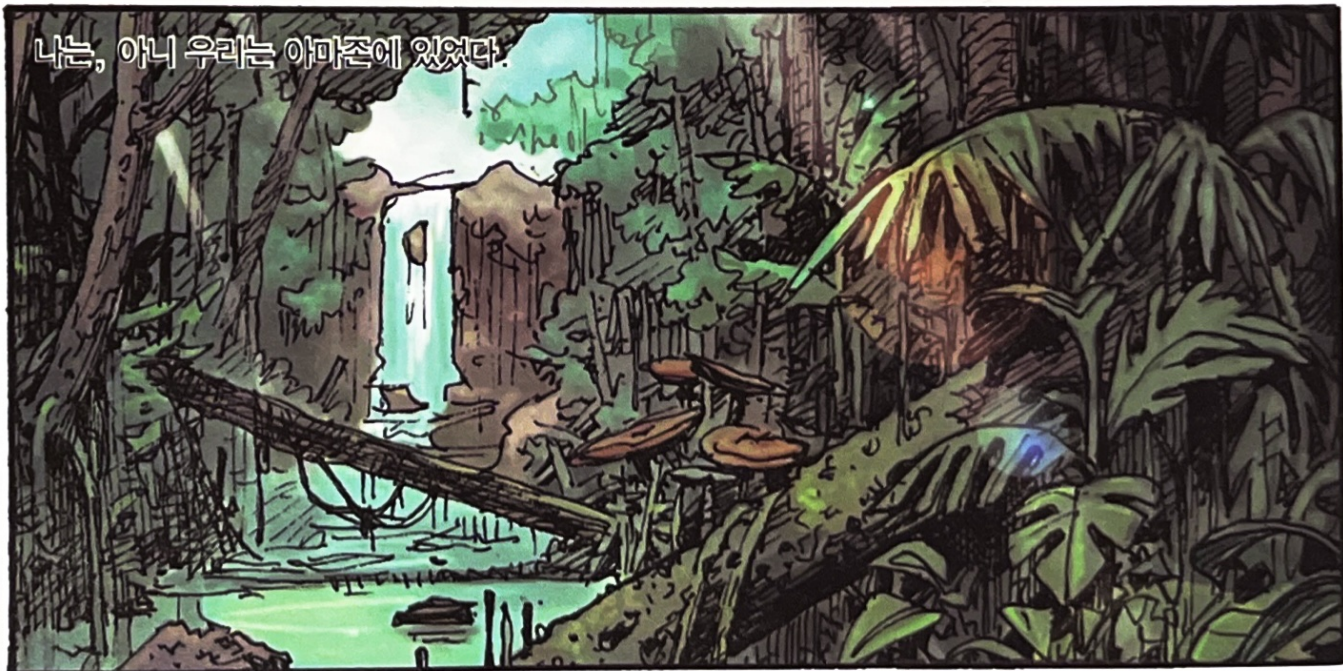
나츠메가요?

가서 봐.
그리고 깨달아.
내가 왜 네게 그런 숙제를
냈는지, 그 이유를.

다음 주에 드래곤과 아미고가
국내로 들어온다.
그 전에 애송이의 껍질 정도는
깨뜨려 봐.

통장에 2억 2천이 다시
들어가 있을 게다. 네놈이 번 돈,
어디 마음대로 한번 써 봐.

그러고도 껍질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나도 방법을 달리 해야지.
세상은 아마조네스니까.

나는, 아니 우리는 아마존에 있었다.

또 그 얘기를 들었다.
세상은 아마조네스.

촤악
촤악

나 잠시 게임 전시장 쪽에 다녀올게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아마조네스-!
핑핑
피용
와자잣,
나의
아마조네스!

콰광!
피융!
전시장은 넓다.

어떻게 나츠메를 찾지?

죄, 죄송합니다, 헤헷.
제가 너무 시끄러웠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와아아아!
우오오!

나보다 더 시끄러운 곳.
가장 많은 아니만들이 모인 곳.

탁
타닥

그곳에 나츠메가 있었다!
우오오오~!
와아아아아

메가 마스터! 메가 마스터!
메가 마스터와
누들스다!

타다다다닥
타다다닥

달칵

그러니까 대략… 다섯 개인가, 게임들을
만렙 채우고 1등을 먹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모두들 날 마스터
나츠메라 부르기 시작했지.
자~

스무 개의 게임에서 서버 하나씩은 확실히
장악하자, 그 앞에 단어 하나를 더 넣더라고.
딸칵

꿀꺽
꿀꺽
메가 마스터?

내 PC방 이름이 그거잖아,
메가PC방. 냐옹.
카아

그럼 누들스는 뭐야?

내 크루(crew)들.
내가 서버를 옮기면 따라 옮기고,
내가 모이라면 모이고,
싸우자면 싸우고.
내 손발처럼 움직이는,
대략… 충성심 가득한
우리 조직원들.

…….

보스!
꾸벅
꾸벅
조직원?

최근의 게임 시장,
특히 게임 기획자와
프로그래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 줄 알아?

엔드유저(end user): 최종 사용자

콰광
쿵쿠궁

!

어서 와.
뭘로 줄까?
칵테일?

칵테일. 이름은….
'그러나'가 없는 세상.

!

그런 칵테일은 없고,
우울할 땐 그저 이게 최고지. 소주.
탁

파는 건 아니고
내가 가끔 마시는 거야.
!

꿀꺽
꿀꺽

…어이, 마이 아미고. 거긴 몇 시나? 새벽이야? 으응, 그래. 바쁘구나. 새벽부터… 바쁜 거야?

멀리 있는 친구는 너무 바쁘고, 가까이 있는 친구는 신혼 여행을 갔으며,

여기 하나만 더!

더 가까이 있는 친구는…
'추가'가 없는 세상! 오늘은 여기까지가 적당하겠습니다, 손님!
으윽…
너무 시끄럽다!

탁
탁

꿀꺽
꿀꺽
휴우우~
왜 그렇게 맥 빠져 해요? 애인한테 차였어요?
!
그 농담 재미없네요. 저, 세상한테 차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만이 존재하는 세상에 차였습니다. 엉덩이가 아파요.
대 봐요. 약 발라줄게.
여, 여기서 엉덩이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체결된 계약이 하나도 없단 겁니다, 네피요.
우리 생각과는 결과가 많이 다르네요, 그쵸?
이해가 안 됩니다. 재밌고, 운동도 되고, 더구나 새롭습니다. 왜 네피를 안 타는 겁니까? 정말,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세상입니다.
맞아요. 몰라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

신약 루비돈이 처음 나왔을 때 어땠는 줄 알아요?
세상 아니만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다가 와아아, 신약이다, 사자, 이랬을까요?

그, 그건….

새로운 아니만을 처음 볼 때 어때요? 처음 보는 순간에 좋다, 나쁘다 단숨에 결정 짓나요?
…….
네, 당신은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아니만들이 같을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시간을 두고 결정을 내리죠. 네피도 마찬가지예요.

한편 전혀 새로운 개념의 신작 게임의 제작을 발표한 메가 마스터 나츠메와 그의 크루 누들스는…

신작 게임 제작 발표?!

들었
습니까?

네. 과연 나츠메 오빠답죠?

아, 알고 있었던 겁니까?

게임 산업 쪽은 너무 빨리
커지고 있어요. 쓸 만한 재원들은
이미 억대 연봉을 넘긴 지 오래죠.
다들 배가 불러서 새로운
게임 개발에는 엄청난
돈과 노력이 필요해졌어요.

오빠는 역발상을 한 거죠.
게임 좋아하는 아니만들, 게임을
인생 그 자체라 생각하는 아니만들이
메가 PC방을 통해 메가 마스터
나츠메의 옆으로 모여들었어요.

누들스!

지금 게임을 좋아하는
아니만이라면 모두
메가 마스터 나츠메와 누들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해요.
그들이 만들어 낼 새로운 게임.
기대되지 않아요?

역발상!!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

네피의 첫 번째 전시회에서
저는 오더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끈
불끈

멈추지 않겠습니다.
웅크리지도 않겠습니다.

세상이 모두 네피를 알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타는 즐거움을
느끼게 만들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나'가 있는 세상이 더 좋겠네요.

'그러나'가 있는 세상.

반전이 존재하는 세상.

으랏차차차차차-!!

!

멋지게 자란 뿔,
단단해진 눈빛.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마이 아미고!
타악!

헤에~.

차 샀네, 태호.

회사도 하나 차렸어.
아직은 그냥 개인 회사로
이름만 겨우 걸어
놓은 상태지만.

그래, 그렇구나.
예전에 말했던 그…

맞아, 네피.

아, 네피… 그래….
그런 이름이었지.

어이!
잘 지냈는지 정도는
물어봐야 하잖아.
솔직히 반응은 아직이야. 그래도 실망은 안 해. 새로운 제품이 알려지려면 본래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
삐리리리리리
네. 아미고입니다.
응, 그래, 들어왔어. 오케이. …저녁에. 그래, 그렇게 하자.
…….
드래곤이야. 녀석은 하루 일찍 들어왔거든.
뚝
…사업은 잘 되지?

응. 너무 잘 돼서
겁날 정도야.

핫하, 그래.
뉴스에서 거의 매일 봤어.

아이구, 내 정신.
오랜만에 보고 일 얘기라니.
불독의 바에 지금쯤 모두
모였을 거야. 오늘은, 몽땅 잊고
제대로 놀아보자고.

참, 주앙이 결혼 얘기 들었어?
결혼 후 첫 파티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어. 헤헷.
그, 그게
말이야.
태호야,
나….

찌릿

니야~옹. 왜 나까지 불러서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어?
나 대략… 바쁜데.
할짝

벌컥
벌컥

우린 가족이에요, 나츠메 오빠.
1년 만인데 얼굴 정도는
보러 나오는 게 옳지 않아요?

오빠란 호칭 마음에 안 들어.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그냥 미스터 나츠메,
그 편이 더 듣기 좋아.

!

흠….
…….

소곤
소곤

험험.

아무튼 얼굴 보고 싶다는 건
이쪽 사정이고,
아미고도 그럴까?
본래, 바쁜 아니만은 안 바쁠 때도
대략 바쁜 법이거든.

네…

네,
강태호
입니다.

어디예요, 태호 씨?
여기 다들 기다리는데.
파티, 안 할 거예요?

그, 그게 말이죠.
파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

우리들의 파티가
아니라서 문제지만요.

어떤 아니만들의 파티인지
짐작조차 못하실 겁니다.
으아, 맙소사.

세계 경제의 큰손들은
거의 모인 것 같아요.
더구나…

… 드래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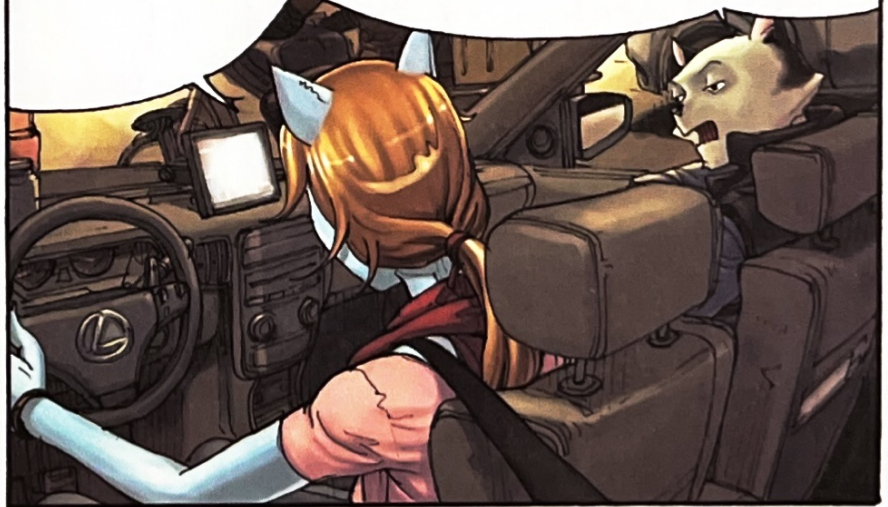
후우….
탁

아미고가 못 온대요.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대요.
미스터 타이거도 그곳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쪽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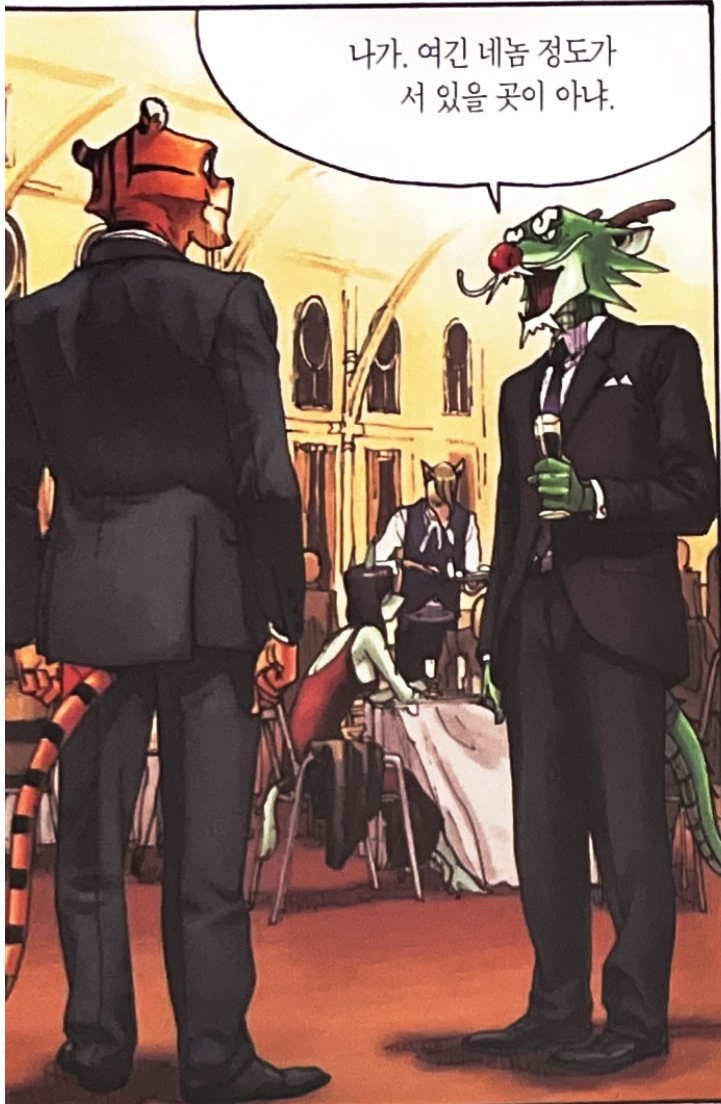
안 오면 어때?
우린 우리 자기야만 있음 돼요.
놀자고. 자아, 놀자구요.

크아아아앙~ 솔로천국, 커플지옥!
꺄악!
으악!

우리도 가 볼까?
그 중요한
약속이란 곳 말야.
으윽…
!
어딘지 알아요?
무슨 파티인지?
운전만 해 준다면
내가 찾아내지.
대략, 돈 냄새가
진동하는 곳일
테니까.
솔직해 말해 봐요.
이렇게 될 것, 알고 있었던 거죠?
누들스엔 다양한 직종별 아니만들이
모여 있어. 그 중엔 금융 관계자들도 많아.
금융 거래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푸는 것.
대략… 좋아 보이지?
혹시 오빠도
초대받았어요?

난 일개 PC방 사장인걸.
그보다 그 오빠란 호칭 좀….

좋은 내용.
좋아도 너무 좋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올 거야.
그게 바로 회장님이 이번에
배제된 이유고.
!

시작되는 거야, 드디어!
늙은 사자를 노리는
어린 맹수들의 싸움이!

나가. 여긴 네놈 정도가
서 있을 곳이 아냐.

루돌프가 있는 곳엔
나도 있을 수 있겠지.
힘으로 끌어내 볼 텐가?
피식

힘? 여전히 야만스럽군.
아미고가 왜 널 여기까지 데려왔다
생각하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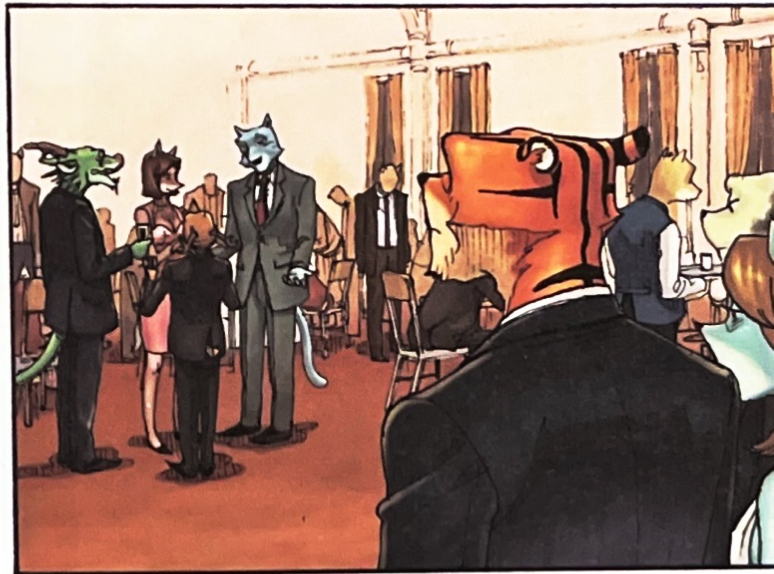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너의 위치와 아미고 자신의 위치.
여기 와서 널 잠시라도 챙겨준 적 있나?

그런 적 없다.
아미고는 바쁘고,
난 그저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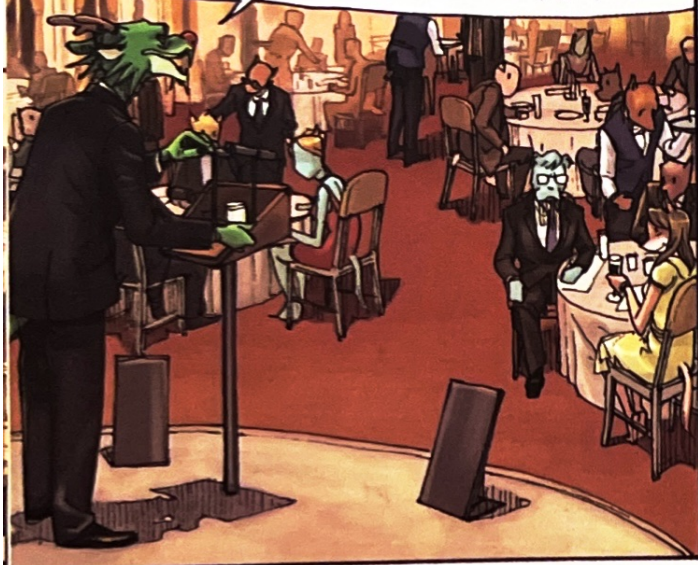
가기 싫으면 있어도 좋아.
필요하다면 먹을 것도 가져다 주지.
조용히 느껴 봐. 너와 '우리들'의 거리가
얼마만큼인지를 말야.

휙

나는 계속 서 있기만 했다.
아니야.
절대로 아닐 거야.
뭐가
아니란 거죠?
휙

웅성 웅성
이렇게 보니까 실감 나네요. 아미고와 드래곤은 우리완 다른 곳에 있어요. 적어도 지금은.
냐옹. 너무 오래 졸았던 모양인데. 헤헷. 불리하겠는걸.
불리해? 뭐가?

대략… 멍청하긴. 모르겠어?
싸움이 시작되었잖아.
적합자를 뽑는 첫 번째 싸움.
!

저길 봐.
선전포고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드린 안건은
엄중한 비밀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개인적으로만 전해드린 점
양해바랍니다.

꽈악

하암~
엄중한 비밀은 개뿔….
하암. 곧 몽땅 다
알려질 텐데….

흐아
아암~
무슨 뜻인가? 나츠메는 드래곤이 오늘
비밀리에 전한 안건이 뭔지 안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 본사의 레오 회장님이 참석하지 않으신 이유를 물어오셨는데, 동양 속담 중 저와 아미고 이사가 가장 좋아하는 한 마디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청출어람(青出於藍), 청어람.
우리가 그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건,
우리는 그것을 능가할 것입니다.

윽!

쿠르르릉
선전포고!
그리고 대전쟁!

쏴아아아

하암

그 순간이었다.
띵동
위이이잉
삐리

버스팀의 소집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죠?
높은 곳?

모두 모일 것.
가장 높은 곳으로.
모두 모일 것
가장 높은 곳으로
You Man

뭐, 서울 타워라든가
북한산 정상…
그렇게 단순한 의미는
아닐 거야. 그치?

가장 높은 곳.
높은…

그런데 왜 나한테도 문자를?

쿵
쾅
쿵
쿵
엘리베이터들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헉
허억

왜 여기로 왔어?
여기보단 서울 타워가 더 높은데.
백수의 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건 그곳이 대략…
가장 높은 곳 아닐까요? 냐옹.
야생 호랑이처럼 빠르질 못해서요.
엘리베이터, 회장님 작품이시죠?
하여간 고생시키신다니까.
피식
모든 버스팀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너희들뿐인 거냐, 내가 선 곳이
가장 높다 생각하는 놈들은?

휙
휙

대략… 그런 모양이네요.
긁적

뭐, 다른 놈들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곳을 찾아갔을 거고.
니야옹.

시원한 비야.
아주 시원해, 오랜만에.

시원하긴 뭐가!
헛소리 말고 당장
들어오지 못해-?!
!

크로단 이사님!

여기 오지 않은 놈들은 드래곤과 함께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

버스팀들이 드래곤과!

또 남의 회사에 와서 주인 행세군. 그 버릇, 언제 고칠 거야?
피식

드래곤의 뒤에는 마오가 있고, 그 뒤에는 다시 후앙첸 회장이 존재해. 다시 시작되는 거야. 과거의 그 끔찍했던 싸움이 다시!

그러게 경고 했잖아! 드래곤의 아니메리카 파이낸싱팀 프로젝트. 그 계획을 허락하지 말랬잖아!

난 장사꾼이야. 드래곤의 프로젝트에서 물씬 풍기는 돈 냄새를 맡았는데 어떻게 거절하란 말인가?
드래곤이 대산제약에 얼마나 큰돈을 벌어줬는지 자네도 알잖아!
드래곤은 돈보다 더 큰 걸 가져갔지. 아무튼 모두 자네 책임이야. 일 년 전의 결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라고.
야수의 행복이 뭔 줄 아나, 친구?
!
피 흘리는 싸움. 죽기 직전까지 처절한 싸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처절한 숙명이야말로 야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지.
우르르 콰광

그때… 나는 들었다.
회장님의 온 몸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소리 없는 포효를.

함께 울부짖고 싶었다.
세상을 보며, 싸우겠노라고!
내가 너와 피 흘리며
싸우겠노라고!

드래곤의 선전포고 뒤
열흘이 지났다.
왜 아무 것도 묻지 않죠?
?
지난 열흘 동안 태호 씨는
한 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이젠 대산제약을 완전히
떠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파티장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일종의
주제파악이라고 할까요?
!

제겐 네피 하나만으로도 버겁습니다. 회사가 회사를 먹고 돈이 돈을 먹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다룰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못 본 척 하겠다는 건가요?

…….

곰의 포옹, 새벽의 기습. 적대적 인수 합병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는 많아요.
하지만 드래곤이 이번에 취한 방법은 그 어떤 것보다 오만하고 적대적이에요.

그는 파티장에서 대놓고 대산제약을 갖겠다 말했어요. 국내외의 경제 거물들을 모조리 모아 놓구요. 회장님 앞에 놓인 선택은 오직 하나예요. 둘 중 하나가 피 흘리며 쓰러지는 것.

전 회장님을 믿습니다. 회장님은 강합니다.

드래곤은 어때요? 약한가요?

그, 그 녀석은….

그놈은 치밀하고 영악합니다.
절대로 약한 놈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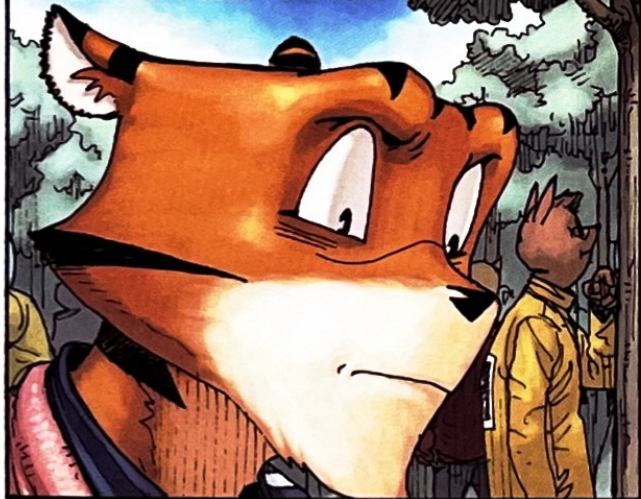
공식 석상에서 드래곤이 대산제약의 인수합병을 말한 건 그만큼 자신 있다는 표현이에요. 상황은 급박해요. 드래곤은 지금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어요.

아니메리카 투자 회사에 대산제약의 지분도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AFT가 커진 만큼 대산제약도 커지는데 그렇게 쉽게…

드래곤은 지금 태호 씨의 전략을 이용하고 있어요.

에…?
제 전략?

돈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던 드래곤. 아니만이 무엇보다 중심이라던 강태호 씨. 드래곤은 AFT를 성공시켰다는 자신의 지명도와 인맥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마오와 후앙첸 회장의 힘도 뒤에서 작용하겠죠. 그날의 파티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망설이는 이유는 따로 있다.
나는 이제 전에 모르던 몇 가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아,
오늘도
간다아~!

우선 이런 홍보가
큰 영향이 없다는 건 안다.

으랏차차!

점~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타 볼래요,
어린이 여러분?
꾸벅

백 년쯤 이러고 다니면
세상이 모두 네피를 알겠지.
휴우~
시간을 줄일 방법도 있다.
인력, 광고. 결국은 돈!!

거 특이한 물건이네.
얼마요?
어디 가면
살 수 있수?
우리 아들놈이
사 달라 조르는구만.

네피
타 봤니?

응. 재밌어.
더 타고 싶어.
계속 계속 타고 싶어.

그냥
드리겠습니다.

!

그렇지만
싼 물건으론
안 보이는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드님이
네피 타는 모습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타면서 느낀 감상을
덧붙여주면 더욱 좋구요.

그런 조건만으로
이걸 공짜로 준다고?

주소랑 전화 번호 불러주세요. 약속 어기시면
제가 직접 찾아갈 겁니다.
그땐 본래의 가격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

자아, 얘들아. 오늘은 여기까지.
일주일 후에 또 오마.
그때 보자아~.

NEPI
NEPI
NEPI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삐리리링

응. 그래. 아미고.
오랜만이네.
너 전화 너무 연결이 어렵더라.

아무리 바빠도 와. 무조건 와. 만나자.
꼭 만나야겠어. 장소는 내가 문자로
다시 보낼 테니까.

ABC
끼이익

F3

아미고?

나 정말 시간 없어, 태호야.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라고
해 놓고 늦으면….
달칵

구아아아아아아앙~
이
녀석이!

휙

콰우우우우우!!

끼이이이이이
으와
아앗!

아악…

가, 강태호.
너 지금….
타! 드라이브다.
부아아아아!!
전화… 잘 안 받아서 화난 거야?
그럴 일이 있었다니까. 바빴다고.
콰악!

으아아아아아아!
쾅

그걸 써. 안전 벨트도 매고.
속도 더 높인다.

후다닥
태, 태호야.
화난 거면
좀 풀고… 응?

우린 친구야. 그치?

그, 그야 당연히…
어쨌든 속도 좀 늦춰.

부아아아아!!
끼끼기

어, 어디로
가는 거야?

저 앞에 빨간 선 보이지?
저게 뭔 줄 알아?

!

크아아아아앗…

크구구구크!!

머, 멈춰! 충돌한다아아-!

크구구구구!!!

꽈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

끼이이이이이!!!
ECOR
TLT

끼이이익
TLT

으아아아아!
으으아아아아아아!

부딪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마지막을
표시한 선이야.
저걸 넘으면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벽에 부딪치지.

인생에도 그런 선이 있지 않을까?
넌 지금 그 선 위에 있고.

…대산제약…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여기서 멈춰, 아미고.
더 가면 되돌리지 못해.
회장님과의 사이도.
그리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사이도.

찰칵

결국 회장님 쪽에
있겠단 거야, 태호?
!

너, 그 말 뜻은…?

C+T
NIKE

내가 작고 약해 보여?
네가 회장님이랑 같이 있는 것 정도가
내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
NIKE

뭐?

혹시 뭔가 착각하는 것 아냐?
연수원에서 널 재합격 시켜준 게
누구였지? 지금의 네가 있도록
도움 준 게 누구였어?
너 혹시 지금까지
네가 날 도와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응?

C+T

끼릭

부우우웅!

Power

망할 자식아! 정비 맡긴 차를 가지고
나가면 어째? 기껏 새로 시작한
정비사 일인데, 들키면 난 그냥 모가지라고!
와락

…형, 우리 아무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리고 만 것 같아.

뭐, 뭐야? 너 드디어 레이첼이랑
그렇고 그런 선을 넘은 거야?

레이첼 말고!

뭐엇?
너 레이첼 말고
딴 여자가 있었어?
너 양다리였어?

그거 말고.
남자라고, 남자!

남자랑? 너 남자랑 그런 취미가 있었던 거구나아!
머…?

그날 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아마존에 있었다.

남자는 보는 대로 죽이려 한다는
아마존 여전사들의 땅.

바스락
휙

까드득

날 죽이는 레이첼의 모습에 놀란 다음 순간,

!!

스르륵
그녀의 얼굴이 아미고로 변했다.

철컹

간밤의 꿈 탓일까?
레이첼을 보는 기분이 묘했다.

나
기다렸어요?

제가 할 일이 있겠습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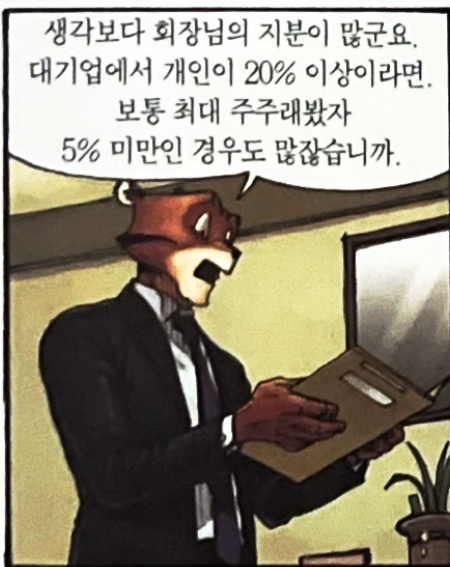
회장님을 도울 능력에 제게 있을진
모르겠지만, 해보려구요. 가능하겠습니까?

HIT

큰돈은 숫자다.
큰돈에 대한 자료들은
철저하게 숫자로 움직이고
또한 그렇게 파악된다.
그 숫자에는 인정이 없다.

태호 씨도 아는
내용일 거예요.
중요한 숫자는 0.5.

다음 달 주총이 소집되었어요.
누구라도 50%의 지분을 넘게
확보한 쪽에서 경영권을 장악해요.

생각보다 회장님의 지분이 많군요.
대기업에서 개인이 20% 이상이라면.
보통 최대 주주래봤자
5% 미만인 경우도 많잖습니까.

생각보다 적다고 말해야죠.
회장님은 지분 관리에 엄격하셨어요.
지금은 비중이 많이 준 거예요.

줄어든 이유는?

경영권 싸움에선
누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구요.
이것 역시
숫자의 문제군요.

혹시 이글아이 이사님이
문제 되는 겁니까?

아뇨. 이사님의 마지막 경고는
드래곤을 경계하란 거였어요.
절래
절래

이글아이 이사님은
우리 편이세요.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요.

그럼 뭐가
문제인…?

제일 밑에 쓰인
이름 보이죠?

!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흐름,
그 중앙에 한 명의
아니만이 존재해요.
그래서
태호 씨가
필요한
거구요.

그 모든 일의 씨줄과 날줄에
걸쳐 있는 한 명의 아니만.

포우 교수님이 지닌 대산제약의 지분은
약 1.5%. 회장님에 비하면 매우 작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크다.

소위 말하는 캐스팅 보트.
포우 교수님의 지분을 당겨오면
50%를 아슬아슬하게
넘길 수 있다.

어어어! 어라라라!

왔어요.
교수님.
정말로
교수님 말처럼
태호가 왔어요.

…그럼 안 올 줄 알았어?
음냐냐.

어떡하죠?
들어오라 할까요?
창문 열고 부를까요?

부르지 마. 올라와도 기다리라고 해.
내가 눈 뜰 때까지.
완전히 맑은 정신이 될 때까지.

에?
코롱~
ZZZ

…태호 올라왔어?
기다리라 말했어?

그,
그게요….

저 녀석도 올라올 생각이
없는 모양인데요.

!

나는 선 채로 계속 생각했다.
나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들.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며
밤이 깊기를 기다렸다.

!

왔으면 올라오지
왜 여기서 청승이야?

싸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흰 싸움과 검은 싸움. 내가 가르쳐 줬던 걸 내가 모를까봐 물어?

검은 싸움은 상대의 약한 점을 노려 적을 쓰러뜨리지만, 흰 싸움은 상대의 강한 곳을 노려 자신을 발전시킨다. 교수님의 정신이 가장 맑아지시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싸움을 하러 온 거다, 이거냐?

AFT의 이론적 기반. 드래곤을 도운 일. 드래곤의 성공. 모든 일에 교수님의 입김이 작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1.5%. 그 지분이 지금 절묘하게 양측의 숨통을 쥐고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지니게 된 이 상황은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에 우연은 없다. 아직 원인을 밝히지 못한 필연은 가끔 존재하지만.

이건 언제나
교수님이 주장해 오시는 내용이죠.

풋!

푸하하하하하!
크아하하하!

잘난 척 말고 따라 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어.
뚝

부우우웅

끽

이렇게
외진 곳에
뭐가 있다고….
달칵

어라,
창고인가요?

촉새처럼 묻긴.
들어가 보면 알 거잖아.

드르륵

탁

두
둥

!!

여기는…?

대산제약이 시작된 곳이야.
아니, 신약 루비돈이 시작된
곳이라 말해야겠군.
알렌이 연구에 몰두했던 장소야.

난 아웃사이더였어.
지금도 그렇고.
기존 학계의 배척을
받았지. 알렌은
그런 날 열렬하게
따랐던 최초의
제자였어.

아!

물론 그것만이 내가 알렌을
좋아했던 이유는 아냐. 알렌은
마음을 끄는 재주가 있었거든.
녀석은 눈은
언제나 빛났어.
세상 아니만들을
모두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꿈으로 말야.

그랬었다. 아미고의 아버지 알렌.
모두들 그를 좋아했다.
이글아이 이사도,
그리고 레오 회장도.

알렌이 루비돈을 개발한 건
돈 때문은 아니었어. 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한 게 아냐.
돈이 보이면 피를 흘리면서도
달려드는 놈들이 있지.

마오 부회장과
후앙첸 회장의 이야기라면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레오를 좋아해. 녀석도 내 제자니까. 그치만 알렌을 가장 좋아했어. 처음 후앙첸과 마오가 대산제약의 경영권을 원했을 때 이글아이와 함께 레오를 도운 이유는 알렌 때문이었어.
레오야말로 알렌의 꿈을 가장 잘 이루어줄 녀석이라 판단했거든.

그, 그럼 혹시 이글아이 이사의 사건 때도…?
버스팀 경우도 마찬가지. 최적자란 알렌의 꿈에 가장 근접한 놈을 의미하거든.

저 지금 기분이 매우 이상합니다.
나는 포우 교수님을 좋아했다. 지식뿐 아니라 모든 것의 스승으로서. 그런데 지금 느끼는 기분은…….

설마 질투하는 건 아니지? 걱정 마. 나, 네 녀석도 꽤나 좋아하거든.

…….

꾸벅

드르륵

탕!

태호는 레오 회장을 도와 달라 말하러 찾아왔어. 내가 고집 부리면 싸울 각오까지 하고.
그런데도 그냥 가는 이유를 알지?

교수님의 뜻이 이미 굳어졌음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제 쪽으로 말입니다.

등!
부아앙

MEGA!
PC

으음,
대략….

멍청한 짓을
하고 다녔군,
바보 호랑이.
따앙!
클릭
클릭

왜 그게 멍청해?
난 회장님을 돕고 싶었어.
너도 회장님을 돕겠다 말했잖아.
우적우적

내가? 언제?
난 그냥 그 옥상에
올라갔을 뿐인걸.

뭐?

넌 회장님이
있는 곳을
가장 높은 곳이라
판단했어.
그런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거야?

나,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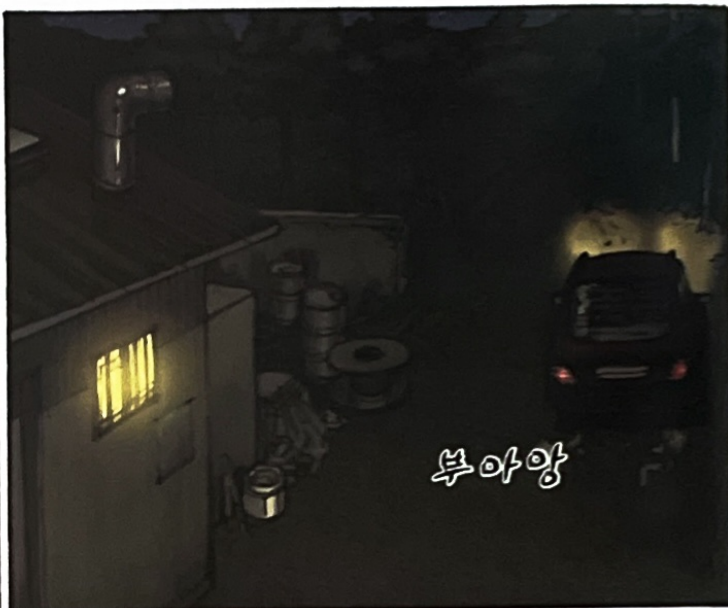
끼익

태호 삼촌이다!!
깜짝
와아!
우루루루루

휙
으응.
핫하!!
나도
안아줘요
나도오
나도나도

이 나쁜 놈!
벌컥!
태호 삼촌~
나도오

요즘 뭐야? 네피는 제대로
팔아보지도 않고 접을 거야?
덥석!

블랙몰 아저씨.
내 꿈을 빌리며
자신의 땀을 주신 분.

형의 꿈은 그냥 네피를 만들어 보는 거랬잖아. 내 꿈도 비슷했어. 제대로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게, 재밌게 탈 수 있게 하는 거였어. 그것뿐이었잖아.

으응?

하, 하지만 일단 만들었으니까 잘 팔려야 돈도 벌고, 애들도 편해지고, 블랙몰 사장님도….
슥적

알아, 형. 나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알려서 많이 퍼뜨리고, 돈도 벌고, 그러고 싶었어. 근데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아.

서, 설마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그건 아니고… 대충 올 때가 됐는데.

철컥
시, 실례합니다. 여기가 혹시….

!

너, 너, 너!!!

이 사기꾼!
여기가 어디라고 와?
잘 걸렸다!
오늘 너 죽고
나 살자아~!

놔 줘, 형.
내가 오랬어.
응?

회장님이 왜 날 마담 가이아와
만나게 했는지를 알겠어.
그건 내가 드래곤의 파티장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해.

파티장에서 난 스스로의 주제를 깨달았어.
그건 내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넘보지 말자,
라는 따위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

칼리토 형은 꿈을 꿨고, 전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고, 블랙몰
아저씨는 제품 생산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꿈을
나눴지요. 우리들이 꿀 수 있는 꿈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남들이 꿈꾸게 해야겠습니다.

하,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회산데
어느 정도 마진은 있어야 유지를….

회장님이 주신
2억 2천이 있어.

광고하기엔 돈이 적고
홍보도 마찬가지야.
파는 사람들에게 우리 몫까지의
이익을 보장하면 부지런히
움직일 거야. 판매가 아니라
홍보란 말이지.

그,
그렇
지만….

하하하하하!

젊었을 때, 난 몇 차례
기회를 만났었다.
누가 봐도 괜찮다 싶은
물건을 몇 개 만들었지.
그때마다 대박을 꿈꿨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신통치 않더구나.
반짝하다가 시들어 버렸어.
나이가 꽤 들어서야 이유를 알게 됐다.
세상은 넓고 물건은 많거든.

내가 괜찮을 걸 내놓으면
남은 더 괜찮은 걸 내놓는다.
이득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지.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도 팔기 시작할
거야. 예전에 실패했을 때 뚫어 놓은
판매망, 마진 포기하고 접촉하면
놈들도 솔깃해 하겠지.
아, 물론 슬라이에겐 경쟁자가
출현하는 셈이 되겠군.
그래도, 해볼 만한 기회지?

하하하!

돈을 벌어, 슬라이.
많이 팔고 많이 벌어.
하지만 명심해. 난 널 좋아하지 않아.
네가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해.

아아… 뭐…
저 역시 당연히
이득을 나눠드릴
예정으로서….

어떤 영화에서… 어떤 멋진 배우가
악당 두목을 연기하면서 했던
대사가 생각난다.
저놈은 착해.
그래서 난 저놈을 믿지 않아.

끼릭

생각해 보게. 내 돈조차
탐내지 않는 악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슬라이는 탐욕스럽다.
탐욕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인다.

새 제품입니다. 혁신적이죠. 개발비가
꽤 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가격은 인정해 주셔야….

꾸욱

남보다 좋은 제품을 남보다
비싸게. 그 말은 틀렸다.
소비자가 꼭 그 제품을 써야
할 의무는 없다. 답과 같은
제품을 남보다 싸게.
그 말도 답은 아니다.

휘~휘휘~
휘익~~
휘휘~~
남보다 좋은 제품을 남보다 싸게.
그 말만이 답이다. 그런 것 같다.
그럼 내 이득은 어디에서 찾느냐고?

이득은 없다, 적어도 지금은.

이곳, 현재, 내 엉덩이가
닿아 있는 곳에서
내가 가져갈 돈은 없다.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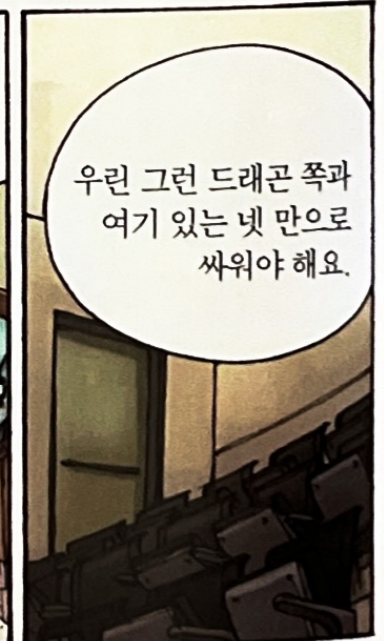
내 긴꼬리가 움직이고 움직여 나가면, 언젠가
지금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더 크고 넓어져
내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지금의 나는 그저 꿈꾸는 일에만 충실할 뿐.
살랑
살랑

띠리리리리

네, 태흡니다.
아, 레이첼.
네? 지금요?

스스로의 판단과 재량으로 움직여 나가는 버스. 버스팀은 우수한 인재들로만 뽑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버스팀원들의 판단은 대체적으로 옳았어요.

너무 우수해서 탈이지. 약삭빨라서. 아! 물론 대략 내가 제일 약삭빠르지만… 냐옹.
냐옹

…어쩌면 이번도 그럴지도 몰라요. 파악했겠지만 지분 경쟁에서 드래곤 쪽이 약간 유리해요. 여기의 약간이란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린 그런 드래곤 쪽과 여기 있는 넷 만으로 싸워야 해요.

왜 넷입니까?
찰칵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인지 여기가 더 좋아 보이네요. 부리로 쪼을 만한 놈도 하나 보이고. 오케이?

난 복잡한 거 싫어.
그냥 여기가
집에서도 더 가깝고
해피해 보여서.
핫하하.

빅버드 선배!
해피 불스 과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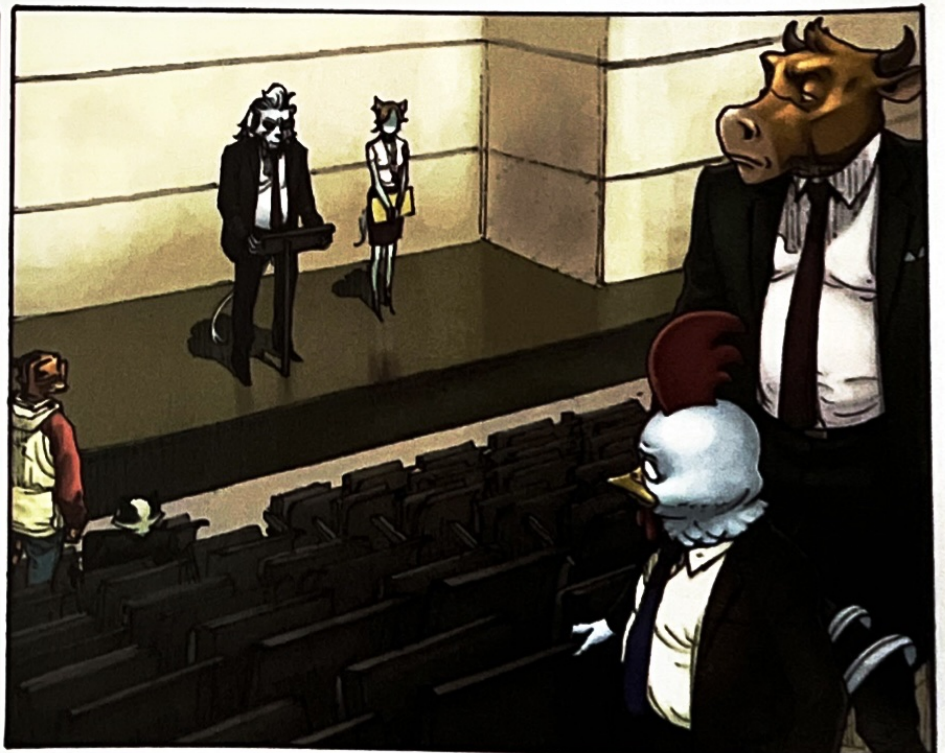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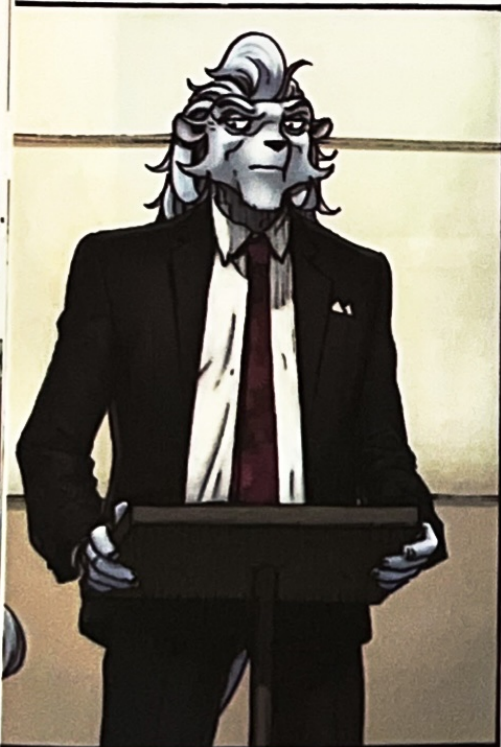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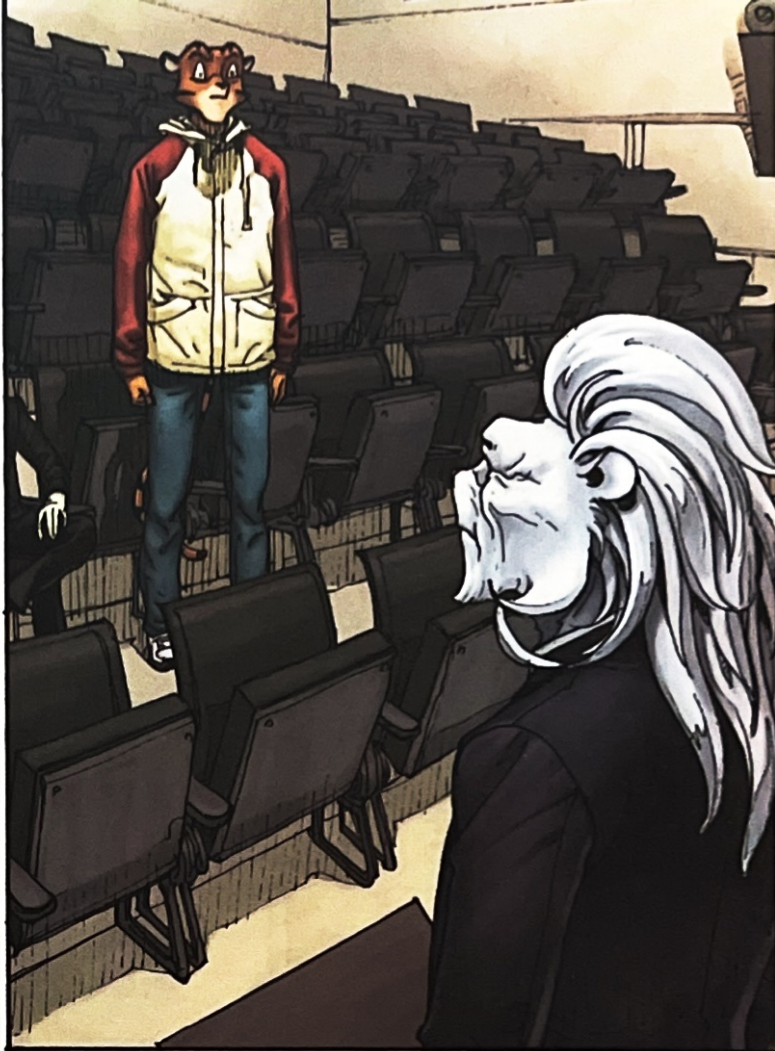
하여간, 엉뚱한 놈들은
여기 저기 널렸다니까.

질문 있습니다, 회장님.
해봐.

아마조네스.
전 이제 그 의미를 알아냈습니다.

말해 봐.
틀렸다간 혼날 줄 알고.

그 전에 대답해 주십시오.

!
알고 시작하신 거죠?
뭐?
드래곤과의 싸움.
회장님은 패하실 겁니다.
그걸 알고도 기다리신 거죠?
자신 있으십니까? 이길 자신이 아니라,
그 패배를 견뎌낼 자신이 있으신지
묻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말이 있다.
모두들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말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나는 그날, 그런 종류의 말을
입에 담아 버렸다.

삐익
삐익

어때? 좋지?

몰라서 물으십니까?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내 밑에 바보 호랑이가 한 마리 있어. 며칠 전에 녀석이 날 똑바로 보면서 묻더군.

눈앞에 보이는 패배. 그걸 견뎌낼 자신이 있느냐고.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

지지 않는다.

싸움은 졌다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패배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놈도 마찬가지야.
내가 인정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픈 게 아니야. 알겠나?

회장님. 이제 고집은
제발 그만 부리시고…

머지않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누들스의 게임 '메가 마스터'에
네티즌과 게이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누들스의 대표 나츠메 J
치하루 씨는 이번 출시될 게임에 대해
일절 언급을 자제하는 가운데…

탁

좀 더 크게 쉬어야
딱이 꺼지지.
달칵
후우….

한숨을 쉬건 사랑을 하건,
시작하면 무엇이든
제대로 해 봐야지.
안 그러냐?

검사도 제대로 받으셔야죠.
결과는 어때요?
평소대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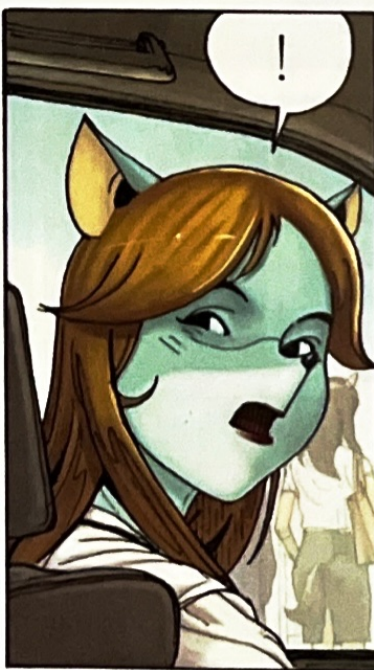
건강하다는구나.

집으로 갈게요. 오늘은
푹 쉬시는 편이 좋겠네요.

나츠메에게로 가자.

!

그 녀석 가게의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지?

…….
안녕하십니까?
!
지쳐 보이는구만, 태호.
끄덕

파김치에요. 며칠째 잠도 못 자며 여기저기 다니고, 위임장 받기 위해 떼 쓰는 일도 힘들구요.
근데 성과가 없어요. 전 멍청이에요. 바보, 구제 불능이죠.
아니, 자넨 똑똑해. 자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제가요? 똑똑… 요?
그래. 버스 팀에 뽑힐 만큼.
버스팀은 저만이 아니잖습니까? 빅버드 선배나 해피 불스 과장님. 모두들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래. 확실히 그들은 자네보다 똑똑하지. 그건 맞아. 그런데…
그런데요?

똑똑한 아니만을 만났으면
그들에게서 뭔가를 배워야 해.
내 말이 맞지?

그, 그건 그렇습니다만…

주주총회가 걱정되지?
회장님이 걱정되지,
응?

끄덕

빅버드와 해피 불스는
왜 느긋할까?
회장님은 왜 초조해 하시질
않을까? 비록 경비 과장이지만
회장님의 오랜 친구인 나는
왜 이렇게 여유로울까?

…….

어려운 일의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네.
주변을 살펴봐.

신은 결코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지
않거든.

역시 전 멍청이 맞네요. 과장님의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가서 뜨거운 물에 씻고
잠을 좀 자. 머리가
맑아지면 세상일도
명쾌해질 테니까.

후루루룩

먹어줄 만하군.
여기 한 그릇, 아니 두 그릇 더.

난 배가 불러야 컨디션이
좋아져서 말이다.
설마 라면만 드시러
온 건 아닐 거구….
둘이서만 얘기할 수 있게
해주겠느냐?
잠깐이면 된다.
레이첼, 너는…
넌 그냥 여기서
라면 먹을래?
제 방으로 가시죠.
거긴 조용합니다.
여기가 메가 마스터 나츠메가,
게임 '메가 마스터'를 만들어
낸 곳이냐?

전 '꿈'을 꿨습니다.
꿈을 대략… 현실로 만들어 준
이들은 누들스구요.

대략? 새로운 게임이 대박을
치리란 확신,
아직 없는 게냐?

확신은 있습니다.
다만, 세상 일이란 게 100%
라는 건 절대로 없으니까.
그래서…
대략 …입니다.

그래, 100%는 없지.
이번의 주주총회도.
그 얘기를 하러 왔다.

그러실 거라 짐작했죠.

주주총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 같으냐?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듣기 좋게
말씀드릴까요?

둘 다.
솔직한 게 가장 듣기에 좋으니까.

내가 패배할 거란 소리구나.

나의 진짜 마음,
너는 알 거라
생각하고 찾아왔다.
나는 패배하지 않아.
이번 주총의
승자는 드래곤이
아니라
대산제약이다.

그 말씀…
서, 설마….

라면, 맛있었다.
집에 한번 오너라.
오랜만에 내가 직접,
파스타를 만들어 주마.
되도록…

…되도록
빨리 오너라.

철컥

탕

숙직실
드르렁~
드르렁~
번쩍
허억…
시간이 벌써
이렇게….
아으!
너무 피곤하게
뛰어다녔던 모양이네!
신은 결코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
과장님의 말이 옳을까?
어이, 신님. 거기 계신다면
해답을 좀….
띠리리리
띠리리리리

슬라이는 악당이다.
악당은 자신의 이들을 위해
남을 설득할 줄 안다.
나는 슬라이가 이득을 위해
부지런한 악당임을 믿었고….
가만, 믿음!
믿음이라고?

strada

12
부르르릉~

한 달이 금세 흘렀다.
주총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을 뵙고 싶었다.
6

!
…아미고의 차.

4

어서 오너라.

오랜만이네.
꾸벅

뭘 그러고 섰어?
좀 앉아.

카이락 말 안 들려?
앉거라. 올려다 보니까
목 아프다.

아침인데도 깨어 계시네요,
교수님.

밤낮을 바꾸는 연습 중이다.
앞으론 필요할 거라서.

필요… 요?

주총이 끝난 후 교수님은
회사로 들어오실 거야.
…….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자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소용 없겠네요.
그래, 소용없어.
그러니까 네놈도
다른 일에나 신경 써.
네피랬지?
그놈은 얼마나 팔려?
돈은 벌려?
잠깐 걸을래?
얘기 좀 하자.
이놈이 감히
내 말을
무시해?
교수님!
뭐, 뭐야, 인마?
왜 인상을 써?
오마낫!

교수님을 좋아했고 존경했습니다.
지금도 좋아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존경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아

뭐?

앞으론 자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
꾸벅

아미고,
따라와라.

태, 태호야.

…….

교수님.

아아, 뭐…
괜찮아.

지도 교수로서의 포우는
여기가 조금 찌릿하지만…
콕

AFT의 고문으로서의 포우,
새 회사의 전략 담당가로서의
포우는 여기가 상쾌해.
이제 낮 생활 적응은 거의
완료된 느낌이야.

태호 말이다,
정말 귀여운
녀석이야.
안 그래?
……,

꾸벅

…교수님.
괜찮으신…?

불러? 자료 정리
다 됐어? 아직 멀었어?
일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이냐고오-?!

나도…

…물을 게 있어, 태호야.
먼저 대답해 줄래?

말해 봐.

넌 어디에 있어?

!

이 싸움에서
왜 아버지의 편을 들지?
네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야?
그 이유는? 언제나 친구고
내 편일 거라던 약속,
잊었어?

지금도 나는 네 친구다.

!
내 위치는 다른 누구도 아닌 강태호,
나 자신의 마음 속이야.
내 마음은 지금도 널 돕고 있어.
무슨 뜻인지 알 거라 생각해.

잘못된 길이다, 그 말이지?
처음엔 초조했어.
이 싸움이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못하다 생각했거든.
그러다가 생각해냈어.
네 말대로 이건 회장님의
싸움이야.

내가 회장님을
믿는다면,
싸움의 결과도
믿어야 해.

…….

아버지가
이기실 거라
생각해?

절래
절래

!

그래도 한 가지는 믿어.
회장님은…

아버지는?

지실 분이 아냐, 절대로.

…….

나도 그러길 바라.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
그게 무슨 뜻일까?
철컥

왜 노크도 없이
문을 열어, 인마?
엇!

나 결혼한 몸이야.
내 순결을 지켜 줘어!

신혼집은 어쩌고
또 내 집에 있냐?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자기가 저기를
가는 바람에….

아!
…….
레이첼. 회장님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녀는 지금쯤
매우 지쳐 있을 것이다.
흐으음.
으와앗!
덜컹
…태호 씨!
아아, 나는 그러니까
날도 덥고 해서….

더워요? 춥지 않고?
이런 날씨에요?

아!

제가 열이 좀 많습니다.
스텔라 씨는…?

그렇군요. 스텔라는
잠들었어요.
풋

아, 그렇군요.
음, 우리 잠시…
그러니까….

우리 산책 할래요?

그, 그거
좋죠!

너무 걱정 마세요.
내일, 잘될 겁니다.

네, 잘될 거예요.
회장님을 믿으니까.

저도 회장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언혀
초조해하지 않잖아요.

풋

!

미, 미스 레이첼.
와락
샴푸 향에 섞여 올라오는
희미한 술 냄새.
추위가 갑자기 모두 물러갔다.

아‥
저기….

!

그, 그러
니까….

흐윽

흔들리는 어깨!
레일첼은 울고 있었다.

DASAN
제약 1쎄
주주총회
DASAN
주주총회

걱정 마. 회장님은 이보다 몇 배
어려운 일도 헤쳐 나오셨던 분이야.
정확한 실명이 알려지지 않은
지분들, 그게 변수가 될 거라고.
오케이?

이제 해피해지는 일만
남았어. 우리 판단과 회장님을
믿자고, 태호.

하지만….

레이첼의 눈물.

그 눈물의 의미는…

어쭈,
제법 차려 입고
왔는걸.

몇 주나 가지고 있어?
자사주로 10주? 20주?
그래도 때깔은
그야말로
대주주인데, 응?
니가
왜 왔어?

왜는, 인마? 엄마랑 장인어른이
내게 위임한 주식이 얼마인 줄 알아?
나, 귀하신 몸이당~.

아!

만지작
만지작

하지만 이 표는 주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크로단 이사님이나 마담 가이아의 주식은
애초부터 회장님 쪽 백기사로 정해져 있었으니까.
회장님을 믿고 있는데도 초조하기 그지없었다.

그리고 결과가 발표되었다.
꿀꺽

…이상의 투표 결과…
흠
흠

전체 주주 62.7%의 찬성으로 레오 회장의 해임안과 드래곤 빅스타의 신임 대표이사 선출건이 모두 통과되었음을 알립니다.
탕
탕

휙
원하지 않는 불안은 왜 쉽게 현실로 변하는 것일까?
레이첼!!

시끌
벅적
레이첼!
레이첼!
오늘은 회장님과 단 둘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건 사양할게요. 부탁해요.

말도 안 돼.
62.7%라는 건 도대체….

안 해피한 상황이군.
술이라도 마실까?
난 너무 허탈해서
부리에 습진이
생겼어. 소독하자.
같이 갈 거지,
태호?

졌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진 게
아닙니다.

!

!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 끝난 것도 아니구요.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나중에 뵙죠, 선배님들.

운전할 기력조차 없었다.
76

생각이 많을 때는 운전하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76

이상해. 많고 많은 게 이상한데

두 가지는 정말로 이상해.

아!

카이락!

망할 자식.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일찍 다니면 꼬리라도 닳냐?

웬일이야?
내 집은 어떻게
알았어?

잔소리 말고
받아.

?

정리하느라
열흘 밤샜다.
꼼꼼히 읽어 봐.
교수님이
읽고 레포트
써 내라셔!

……….
아아함~
졸려라.
나 간다.
이상한 점 첫번째,
주총에서의 찬성 비율.
어푸
어푸

62.7%라는 건
도무지 이해가…

포우 교수님도
이해가 안 돼.
후우.

<미션 임파서블 Mission Impossible
읽은 후 태워버리든지 말든지..>

영화를 너무
보신다니까!
큭!

교수님의 시작 글은 우스웠지만…
스륵

내용은 전혀…

우습지 않았다.

숫자의 결합과 해체,
그리고 재결합과 재해석.
숫자는 돈의 흐름을 표현한다.

우리가 경제를 움직이지만,
경제는 다시 우리를 움직인다.

숫자들은 너무나 많고 복잡해서,
군데군데 교수님이 써 놓으신 해설과
주석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그 의미를
절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돈의 흐름은 경제 주체들이
파악하는 현실과 예측하는
미래를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경제란 그런 작거나 큰 흐름의
총체적 결합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해류!

마지막까지 읽은 후

문득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다.

…아마조네스.

여인들만의 제국.
그곳에 전사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변의 모든 존재는 여자.
아마조네스들은 전사를 죽이려 한다.
하지만 전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한다면,
그런 아마조네스들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아마조네스의 여전사들에게도 모순은 마찬가지.
남자는 그녀들의 적이지만, 후손을 얻고 번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서로 적이면서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아마존족의 여왕 펜테실레아는
아킬레스의 손에 죽었다지?
하지만 아킬레스는 그녀를 사랑했고.

돈이건, 사업의 아이템이건, 동료건, 경쟁자건,
모두가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마조네스의 여전사.
적이지만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싸워야 하는 대상.

네, 강태홉니다.
레포트는 썼어?
교, 교수님.
공항으로 가야 한다.
당장 튀어 왓-!
졸려? 잠이 와?
아침부터 졸아? 잠은 밤에
자는 거야, 이놈아.
하암

…….
힐끔

…공항엔 왜 가시는지…?

존경도 안 하는 교수의
일인데, 왜 궁금해?

그럼 왜 절 부르셨어요?
끼익

나는 운전 못하잖아,
인마!

대산제약은 고문님한테
운전수도 안 붙여 준답니까?
붙여 주게 될 거야.
바로 네놈으로.

!

그치만
전 이미
사표
냈거든요.
그 사표 보류 중이거든.
내가 레오에게 그러라고
시켰어.
!
교수님!
밤새운 소감부터 말해 봐.
내가 대산 제약에
왜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제 알았지?
끄덕
전쟁…
하시려는 거죠?

그래, 전쟁. 그 표현 마음에 든다.
한번 해 보려고.
너무 오래 편하게 살았거든. 때가 됐어.

유래 없는 금융 위기가 다가올 거야.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경제라는 아리따운 여전사. 하지만 그 여전사는 우리를 해치기 위해 지금까지 쭈욱 칼을 갈아오고 있었거든.

꿀꺽

네놈만 편하겠다? 꿈도 꾸지 마.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 네놈도 끼어들어.
알겠지?
TKBS

그렇게 하죠.

!

이것 봐라.
너무 쉽게 그렇겠단 말이
어째 불안한걸.

아뇨. 끼어들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 식대로 하겠습니다.

네 식? 어떤 식?

전 아직 작습니다.
교수님은 큰 싸움 하시고,
저는 작은 싸움을
해보려구요.

익숙해지면 저도 큰 싸움,
한번 해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피식

…이제 누굴 마중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아맞춰 봐.
힌트를 주지.
곧 드래곤의 취임식이
있을 거야.

!

계세요?
안에 계십니까?
광광
광

계세요?
광광
실례합니다. 문 좀 열어 주세요.
광

끼익

여긴 10시 넘어야 문 열어요. 지금은 7시라구요.

마사이족 전사들은 사냥이나 전투에 앞서 전사의 춤을 춥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소의 피를 마시죠.

내 말 못 들었어요? 10시가 넘어야 문을…

자신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의식이죠. 너는 강하다, 그리고 용맹하다!

…10시가 넘어야…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아미고와 함께 최적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

회사로 돌아가는 첫날.
비록 살아 있는 소의 피는
아니었지만,

나는 대신제약의
그림자가 담긴 잔을

단숨에 비웠다.

어제, 공항에서 그를 만났었다.

반갑네,
내가 누군지는 알지?

네, 부회장님.
알고 있습니다.

아들놈에게 얘기는 많이 들었네.
마중 나와 줘서 고맙군.
마오 부회장. 동시에 중화그룹
후앙첸 회장의 오른팔. 드래곤의 친아버지.

…그렇습
니까?
차 빼오겠
습니다,
교수님.
마오 부회장이 전하는
기묘한 균열의 느낌.
잠시 후에야 나는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
요 앞으로 와.

정말 오랜만이죠,
교수님.
71

그래, 오랜만이야.
알렌이 죽은 후론 처음인가?

마오 부회장의 표정 때문이었다.
웃는 입과 웃지 않는 눈.

B C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출근을 한다.

나는야 웃는 입과
웃는 눈. 히히.

어! 어어~~!
과장님!
추웅~성!
폴작
이긍~!
자알 돌아왔다, 내 새끼!
헤헤헷~.
어엇?
엇!
어엇? 아니… 이게 누구야?
어머… 어…
오오!
!
어멋!
!

강태호오
~~~!!

꺄~아
으윽

웅성
웅성

자네 없으니까
회사가 너무 조용했어.
이제야 좀
사는 거
같겠네.
휴가 끝났어? 돌아온 거야?
너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까먹었는 줄 알아?

제 마음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아시죠?
긁적

딱
으윽
모르겠으니까
우선 한 대 맞아!
~~~

와하하하핫-!

회장실로 가 봐.
너 출근하면 올려 보내란
연락 왔었다.

회장님요?

지금의 회장님이라면
그러니까….

어, 주앙아.
물어볼 게
있어.

네, 블랙몰 아저씨.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 미스터 슬라이. 물어볼 것이
있어서요. 말했었던 그 수출 건
진행에 대해서인데요….

…….
뚝

드래곤 회장.
회장 드래곤.
어떻게 불러도 어색하다.
끼익

하지만 내가 어색하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진
않겠지.

미스 레이첼!

호출 받고
왔나요?
저쪽입니다.
파란 얼음 레이첼.
이럴 때는 말 걸지 않는 편이 좋다.

끼익

눈은 본래부터 요기 있었어.
최근 들어 조금 더 커지기도 했고.

편할 대로 하도록.
아 참, 그리고….

포우 고문님은
회사로선 중요한 분이야.
편안하게 잘 모시라고.

그 말 하려고
바쁜데 올라오라고
한 거야?

한 가지 더….

취임식 날, 네게 줄 선물이 있어.
받아보면 만족스러울 거야.

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탁

지금
만나고
나오셨
잖아요.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진 바쁘세요.
지금은 태호 씨 만날 이유도,
시간도 없어요.

회장님도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를 묵인한 겁니까?
무슨
뜻이죠?

지지난 달, 그러니까 8월 한 달 동안에,
1630억 달러의 자본이 이런 저런 형태로
아니메리카의 시장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50%를 겨우 넘었어야 할 찬성 비율이,
무려 62.7%까지 높아졌구요.
두 상황이 연관되어 있는 거 맞죠?

……

밤은 천 개의 눈을
가졌다.

!

윌리엄 부어딜런,
영국 시인.
맞죠?

뒷부분이 이렇게 이어져요.
마음은 천 개의 눈을 가졌다.
그리고 심장은 하나뿐. 그러나 한평생의 빛은
사라진다. 사랑이 다하고 나면.

갑자기 왜 시… 얘기를
하십니까? 사랑을 고백
하시는 건 아닐 테고….

세상엔 천 개의 눈처럼 다양한 아니만이 있고,
그 아니만들 각각의 마음이
다시 천 개의 눈을 지녔어요.

회장님의 일,
포우 교수님의 일,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죠?

교수님의 행동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전하라셨어요.
그 숙제, 끝냈다
생각하느냐구요?

그 숙제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냐구요.

…….

…회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진짜 의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숙제 해나가는 중입니다.

교수님은 다중역할이론을 만드셨다.
그 핵심은 사람의 역할에도
천 개의 눈이 있다는 것.

상대를 바꾸며 떠들고 웃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지금의 포우 교수님은 대산제약의 고문.
그리고 나는 음주 후 대리기사다.

코올~

뭔가 중요한 얘기가
진행 중인가 봐요.
매일 술이시네요.

뭔지 알고 싶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호오!
짐작씩이나?

돈의 색깔을
바꾸시려는
거죠?

돈이 문어냐!
색을 바꾸게!

예전 산업자본의 금융자본화. 아닙니까?
드래곤의 파티에서도 같은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압니다.

제법이구나, 태호.
역시 고생 끝에
똑똑해지는 법이야.
그렇지?
달칵!

요즘 슬라이에게, 주앙에게, 블랙몰 아저씨에게서
매일 현장 경기를 듣습니다.
모두들 돈이 사라지고 있다더군요.

…….

지진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대이동처럼, 위기를 감지한
돈들이 움츠리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럴 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화를
요구하면 당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줄
수밖에 없을 거야.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다간
더 큰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까? 글쎄,
드래곤과 마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던데.

서, 설마 교수님이
요즘 계속 고위 관리들을
만나시는 이유가…!

쯧쯧쯧, 멍청이.

!

조금은 똑똑해지는 줄
알았더니 아직은 멀었구나.
주총에서 레오가 왜 찬성표와
현금을 맞바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

MEGA! PC
Cafe

웬 일이야?
라면 먹으러 왔어?

아니, 다른 거.

다른?
어?
아마조네스의
여전사.
JP BANK
!
하고 있다.
숙제를?
제대로 하고 있다.
강태호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네, 아버지.
그 녀석, 어떠냐?
예? 뭐, 덤벙대긴 해도
일 하는 건 꽤 괜찮은….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말이다.
그, 그건….
시간은 빠르다.
결정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항상
너무 늦어.
그러니까
내 말은…
!

우당탕

아버지-!!

…….

아마조네스의 여전사.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

자, 그럼 설명을 시작할까?
재테크는 크게 주식, 부동산, 저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즘은 융합 개념의
상품들도 속속 출현하고 있어서….

부동산은 아냐.

!

마담 가이아는 공간, 시간,
그리고 아니만을 보라고 했어.

부동산의 대표는 아파트. 공간적으로 공급이
너무 많았고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
무엇보다 아니만들이 지쳤어.
부동산으로 번 아니만은 너무 많이 벌었고,
못 번 아니만은 상실감이 너무 커.

이것 봐라.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를
물어보러 온 게 아니다?

주식도 아냐.
이유는 너도 알 거야.

너도 냄새를 맡은 거구나.
전쟁의 냄새 말야.
흐음

좋아. 내가 묻지. 그럼 채권은? 은행 예금은?
위기 때는 현금이 최고잖아. 회장님이
찬성표 대신 현금을 확보한 이유도….

돈이 아니라
숫자가 필요해.

숫자?

쓸 수 있는 적당한 액수가 아니라
숫자로만 파악되는 거액.
그건 돈이 아니라 힘이니까.
난 힘이 필요해.

돈 구하는 방법은 알려줄 수 있지만,
힘을 만드는 방법이라면
나도 뭐… 대략 어렵네.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에게 온 건 제안할 게
있어서야.

제안?

한번 읽어 봐.
개발비가 얼마나
들까?
탁
…….

Virtual Investment
System. '비스'라고
이름 지었어.

버스가 아니라 비스?
현실과 가상의 연계?
돈 버는 게임?
인간, Human이라는 가상의 존재가 등장해서 경제 활동을 벌여. 일종의 아바타 같은 거야. 물론 우리들처럼 개성적이지는 못해. 자신의 개성을 비슷한 외모 속에 감추고 살거든. 그래서 상대방의 성향을 읽기는 오히려 어렵지. 그 편이 더 재밌을 거야.
아!
짝
게임 속의 경제 상황이 현실을 반영하도록 만들 거야. 상황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개성에 맞춰 재테크를 할 수 있고. 그럼 돈을 버는지, 잃는지의 결과가 나와.
물론 진짜로 돈이 오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알 수 있겠군.
이대로 현실에서 재테크를 했으면 돈을 잃었을지 아니면 벌었을지를.

바로 그거야.

하지만 이게 재미있을까? 진짜 돈이 오가는 것도 아닌데.

공부가 되잖아. 원하는 아니만은 보다 적은 돈을 실제 투자해 볼 수도 있고. VIS에서 10억 투자하면 현실에서는 백만 원, 뭐 이렇게.

…흠, 해볼 만하겠는데… 다만 자료 수집이….

현실의 주가와 자료를 사용하면 돼. 부동산의 경우도 실거래 가격이 공개되잖아. 물론 가짜 거래 자료는 잘 걸러야겠지.

그럼 실제의 플레이 자료는? 생각과 현실은 다르거든.

나를 이용해. 내가 초기 자료를 만들어 줄게.
콕

!

지금부터 2년 동안 이 돈을 움직일 거야.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얼마나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의 자료를 수집해. 가능하겠어?

…….

재밌겠군.

재밌겠지?
해볼 만하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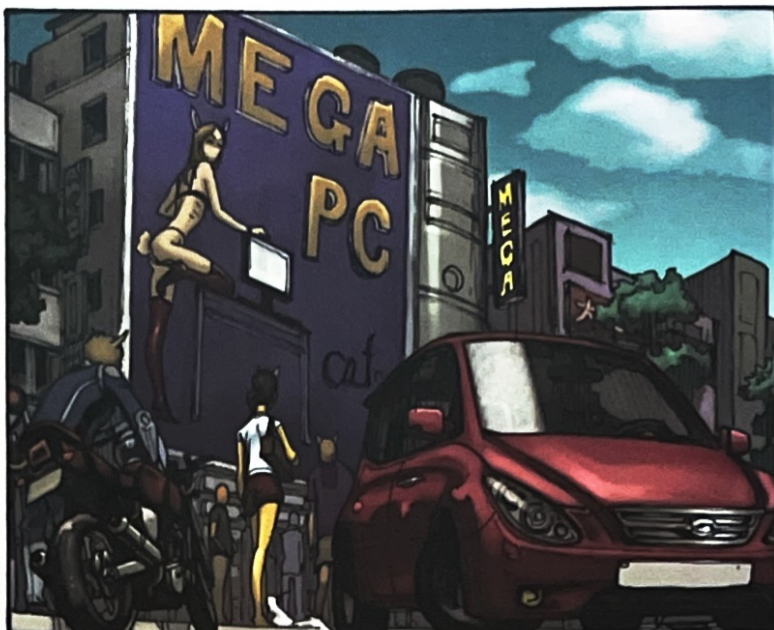
어디 한번 말해 봐, 플레이어 강태호 군.
첫 번째 투자처는 어디지?
통장의 돈을 어디에 투자할 거야?

달러를 사겠어.

!

이상한 생각 같은데,
위기의 근원지가
어딘지 잊었어?
그런데도 달러를 사겠다?
가치가 떨어질 텐데도.

아마조네스. 싸우고 증오해야 할 대상이지만, 또한 사랑해야 할 대상도 그것뿐이니까. 달러가 위기를 만들어 내지만, 마찬가지로 위기가 오면 믿을 수 있는 것도 달러뿐이잖아.

MEGA PC
MEGA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톱 정도는 자랐어. 제법 진짜 호랑이가 되어가는 느낌이야.
스륵

녀석의 말대로야. 달러는 어이없을 지경까지 오르겠지. 우리 나라의 돈이 아직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툭

하지만 최선은 아닙니다. 저라면 달러가 아니라 유로, 엔, 위안을 먼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강태호는 겨우 손톱만 자라났다고 말하는 게지.

준비는 대략…
진행 중이신 거죠?

대충은.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말들이 많아. 오성전자 쪽의
움직임도 신경에 거슬리고.

아무튼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오지.
그때, 꿈의 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거야.
내가 오래전부터 꿈꾸던 대로 말야.
그때가 되면 우리는…

…뭐, 여전히 여기서
게임이나 하고 있겠죠.

위이이잉

뭐? 회장님이?!

탁
탁
탁
모두들 말한다.
투자의 기본은
위험 분산이라고.
꿀~꺽
하지만 누군가는 말한다.
성공의 조건은 남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어떡하란 거야?
남들처럼 위험 분산을 하란 거야,
하지 말란 거야?
레이첼!
와아, 아침부터 전화를 주시고.
저기 해가 서쪽에서
뜨고 있습니다.
!

병원요?
끼이익
!
Zoo Hospital!
Hospital
서둘러 주세요! 부탁해요!

…그, 그렇다면 예전에 몸이 회복되셔서
퇴원했던 게 아니었단 겁니까?

걷기도 힘드세요.
그런데 행사장에는 꼭 가시겠다고.

나츠메는요? 아미고 언제 옵니까?
연락 했죠?

어젯밤에요.
후우

그런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나?
그만 입 다물어.

회장님!

아버지!

으음…

저녁에 〈메가 마스터〉의 발표회가 있다.
나츠메로서는 가장 바쁜 날이야.

아미고는 드래곤을 회장으로
만든 주역이다.
취임식 자리에 있을 테지.

…회장님.

숙제가
계속 진행 중이랬나,
바보 호랑이?
부동산에 투자한 거냐?

달러를 샀습니다.
모두들 원화 상승을 점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사건이 터지면
크게 움직일 겁니다.
심리 효과까지 더해서요.

!

부동산이 아니다?
소 뒷발 잡기로 재미를
봐 놓고도 잡아먹히진
않았단 거구나.

환자답게 그냥 아픈 일에만 충실해 주시죠,
회장님. 구박은 사양합니다.

눈을 더 크게 떠. 독과 약은 같이 다닌다.
달러의 발권력은 처음엔 약이겠지만,
나중엔 독이 될지도 몰라.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세요, 회장님. 평소와 다르십니다.
힘이 드시면 행사장에는
가지 않으시는 편이….

내가 뭐랬지?
언제 패배하는 거라고 했나?

예?
…아!

인정하기 전에는 절대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슥

드래곤, 마오, 후앙첸.
결국 마지막 적은
이 세 녀석이 될 거야.
그런데 벌써부터
패배를 인정하라고?
출발한다. 준비해.

경영권을 빼앗기신 게 아니셨군요.

전 세계적인 불황. 대규모 경제 위기.
환부가 곪아 터지기 시작하는 걸 눈치 채면서
포우 교수님과 나는 서로 다른 결심을 했다.

나는 휴식을,
교수님은 전투를 원하셨거든.

끼익

가자!
이상하게 입구가 낯설었다.
과장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였을까?
…무엇보다 혁신!
모든 걸 바꾸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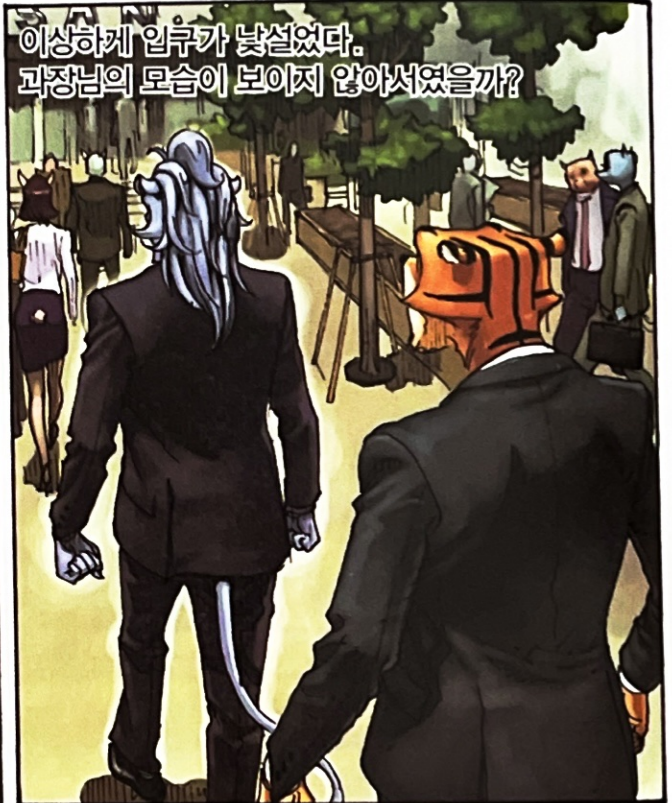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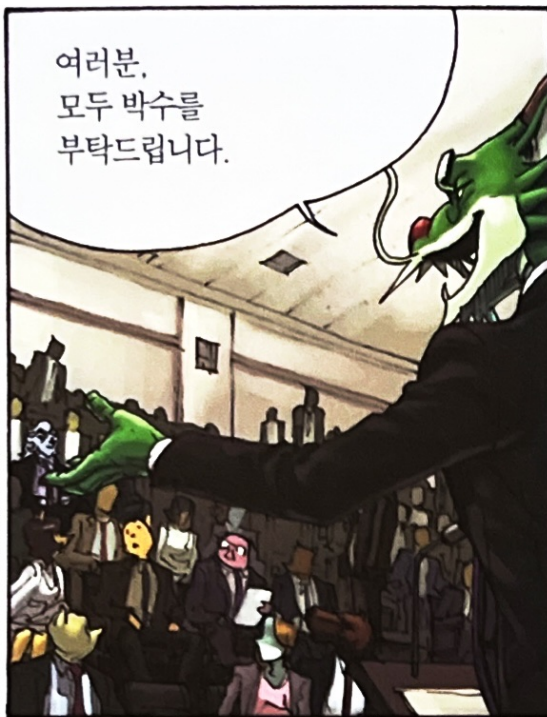
보다시피 저와 경영진이
대거 바뀌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첫 얼굴인 경비 과장을 바꾼
이유도 마찬가지…
그러한 혁신의 상징입니다.

과장님을?
이 자식!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이루시고,
대산 제약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전 회장님께…

여러분,
모두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짝짝짝
짝짝
짝짝

그날 저녁, 나츠메와 누들스가 신작 게임
《메가 마스터》를 발표했다.
MEGA MASTER
Noodles

괜찮으십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쉬시는 편이….

게임 메가 마스터에 대한 발표 잘 들어 봐.
듣고 생각을 말해 봐.

!

이상으로 게임 메가 마스터에 대한
소개 및 발표를 모두 마칩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너무 단순한 것 아닙니까?
요즘 게임의 대세는 웅장 화려한
초대작만이 살아남습니다.
엄청난 규모와 화려한 그래픽을
기대했습니다만 솔직히
실망스럽군요.

돈이 없었거든요.

!
!
!

핫하.
노, 농담하시긴.

농담 아닌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작,
매우 많이 싫어해요. 솔직히
게임할 때 누가 그래픽 보나요?
화려해 봤자 자꾸 보면
지겹지, 뭐.

큰 거 하나 만들 돈으로
작은 거 만들면 대략….
와아, 몇 편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당신 게임은 PC로
돌리기엔 너무 작고,
그렇다고 모바일에
넣기엔 너무 크다고!

당신 목소리는 귀 막고 듣기엔
너무 작고 그냥 듣기엔 크네요.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휙

발표회는 대략 실패네요,
회장님.

MEGA MASTER
Noodles
실망인걸.
그래도 너만은 뭔가
보여줄 거라
생각했거든.

휙

자식분들을 너무 응석받이로
키우신 것 아닙니까, 회장님?
제 몫을 해내는 녀석이
한 명도 없네요.

!

너야말로 그 주둥이 두들겨 줄 아니만이
한 명도 없었던 모양이구나,
드래곤.

회장님께 무슨
말 버릇이냐, 강태호?

해보잔 거야? 좋지. 그렇잖아도
운전기사 자리 짜증나던 참인데.
짜악

싸우러 온 것 아닐세,
강태호 사원.

……
모시러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초대하셨습니다.
그냥 가신 게
서운하다구요.
…혹시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교통사고,
그게 누구 짓이었는지
말이에요.
서, 설마?
!
좋아. 초대에 응하지. 마오에게는
받아낼 빚도 많으니까 말이야.
아버지-!

…….
!
오셨군요, 선배님.
제가 좀 바빴습니다.

그래, 신경쓸 것 없네.
날 왜 불렀는지 이유는
알고 있으니까.

알면서도 오셨다는 겁니까?
끝까지 체면을 지키고 싶으시단 소리군요.

체면? 자네는 사업을 체면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모양이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톡톡

경영권은 이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네가 아니라
후앙첸이겠지.
요즘도 후앙첸을
보면 꼬리를
흔드는가?

좌아악
이런!
뭐 하는 겁니까,
부회장님?!
흥분 말게, 강태호 군.
손이 미끄러진 것뿐이야.
…….
내기할까요, 선배님?
선배님을 위해 수건을 가져오는 아니만이
있을까요? 전 없다에 걸겠습니다.
…….

예전에 차이니멀 지사로 떠날 때,
전 뼈가 시리도록 느꼈죠.
패자를 위해 준비된 수건은
세상에 없습니다.
잘 가십시오, 선배님.
앞으론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와하하하하하—!

…괜찮으십니까?

패자를 위해 준비된 수건은 없다.
좋은 말이다. 그렇지 않느냐?

예? 아, 예!

할 수 있겠느냐,
태호?

예? 아, 숙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시간, 공간, 아니만을 보라는
마담 가이아의 가르침은 부동산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

네놈의 꿈은 뭐였지?
그 꿈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그건….

숙제에 대한 내 질문에 레이첼에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다고? 그게 얼마나 멍청한
대답인지는 알고나 있는…

!

쿨럭 쿨럭!!

아버지!
회, 회장님!
휙
언젠가
마오에게,
드래곤에게
오늘 내가
들었던 그 말을
되돌려 줄
자신이
있느냐고
묻고 있다.
…….
자신 있어요,
태호 씨?
우리,
해낼 수
있을까요?
자신 없습니다.
절레
절레

!
!
솔직히 지금까지 자신 있다 생각하고 시작해 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버스팀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없어도 해내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

…아버지.

와하하하하하-!
아마도 회장님의 각혈 때문일 수 있고…

푸하하, 하하하하하하-!
혹은 레이첼의 근심어린 표정 때문일 수도 있다. 나는 그날 묻지 못했다.

왜 내가?

아미고나 나츠메나 레이첼이 아닌 내가?
도대체 내가 왜?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거꾸로 말하면…

아악!!
으으..

위기는 결코 예고되지 않는다는 것.
파산
D사 최종부도
S전자 부도 처리
D.K건설 부도..!!

이런 식으론 안 되네. 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리자?

현금 흐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 말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네. 오성 전자가 지금의 자리를 만든 것도, 위기 때마다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남을 믿고 투자를 한다는 건 너무 위험해. 자네의 자신감은 중화그룹을 믿기 때문 아닌가?

내부적으로도 움직이는 중입니다.

군더더기 사업체를 처리하고, 능력 없는 사원들도 정리 중입니다.

자넨 다중역할 이론의 핵심이 뭐라 생각하나? 자네가 정리한다는 그 사원들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고객이기도 해.

문제는 능률입니다.
남은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은
혹시 아나?
후우

경영자는 접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죠.

이대로
진행시키도록.
후~

탁
!

우리
오랜만에
같이 식사나
할까, 레이첼?

웅성
웅성
요즘 힘들지? 수석비서가 잡무나 하고 있으니.
드래곤은 절 통해 자신의 성공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절 붙들고 있는 걸 아니까, 힘들진 않아요. 조금 지루한 게 문제지만요.
네놈은 지루할 틈이 없지?
매일 운전하랴, 취하셨을 때 업고 들어가랴. 회의 때마다 절 꼭 데리고 다니시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꼼지락
불만이면, 앞으론 빼주랴?
그건 아니구요. 회의 한 번 참석할 때마다 알게 되는 지식이 학교 수업 일 년 치는 간단히 넘기는 기분입니다.

그럼 수업료를 내야지?

예?

너희 둘,
세계 정복을 위한 준비,
얼마나 잘 되어가는지
보고해 봐.

그 말씀은, 대산제약
고문님으로서의 질문입니까,
아니면 제 지도교수님으로서의
질문입니까?

성공의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절실히 느끼는 늙은이로서의
질문이야.

예?

누구든 변해.
난 드래곤을 전쟁을 함께
수행하기에 충분한 녀석으로
봤고, 그 판단은 맞았었어.
녀석은 AFT를 멋지게
성공시켰으니까.

그 말씀은 드래곤이….

그래, 변했어.
한때 돈 벌어주던 금융은
지금 시한 폭탄이
된 지 오래야.
그런데도 드래곤은
그걸 놓지 못해.

큰 승부에서 이겨본 자는 승리의 여신이 언제나 자신만을 바라봐 줄 거라 생각하지.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

네놈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거야.

…게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교수님?

게임?

나츠메의 라면이 죽입니다. 라면 먹으면서 게임하는 기분, 아직 한 번도 못 느껴보셨죠?

휴먼…이라고?

하이퍼 유니버스(Hyper Universe)에서 HU를 따구요,
우리들 아니만의 MAN을 땄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제 활동을 벌입니다.

우리보단 덜 개성적이지만요.

태호 녀석 말대로 만들어 봤는데
뭐, 그럭저럭 재밌어요. 무엇보다 현실적인
투자의 결과를 대가 없이 알아볼 수도 있고….
탁
탁

휴먼 타이거를
한 번 보시겠
습니까?
타닥
탁

외환 투자로 지난 석달 간 재산을
두 배 가까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오는 녀석은…
TDMI

누군지 알겠지?
휙

반칙을 했군.
완전 사기 외모잖아.

생김새는 머리를 반영해.
나는 세 배 넘게 불렸거든.
달러가 아니라 유로와 엔을 주로 건드렸어.
톡톡

현 재산 상태를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지 그래?

!
어?

마, 말도 안 돼.
이건….

나도 달러 쪽은 손을 뗐어.
주식과 부동산. 부동산은 힘들지만
주식은 내릴 때도 돈을 버는 수단이
있잖아.

…공매도?

풋 거래?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구나,
태호.

저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레오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아마조네스의 뜻이었지 않나요?

도대체 얼마나 번 거야?
타닥
탁

헉. 이, 이건…!
!

설마 현실에서도 이런 식의
거래를 한 건 아닐 테지?

비슷하게 했어.
결과도 비슷할 거고.

위험한 짓이다.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전 재산이 날아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란 말씀이시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

돈이 아니라 힘을 원합니다.
제 알들이 깨졌을 때,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불끈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계란이라도
한 그릇에 담아 볼 겁니다.
하나쯤은 돌연변이가 되어 있기를
바라면서요.

망해서 손에 쥔 게 아무 것도 없어지면?

전 원래부터 가진 게 없었는 걸요, 뭐.

이놈아, 성공은 대가를 요구하는 법이야! 우연한 성공은 더욱 큰 대가를 원해!

대가가 필요하다면 치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성공의 꼬리와 실패의 꼬리가 얽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되도록, 게임 속 세상에서만 대가를 치르고 싶지만요.

…….

혹시 대산제약의 미래도
게임에 넣어 보았느냐?

네, 교수님.
보시겠습니까?

싫다. 내 전쟁의 끝을 네놈들의
모니터로 보고 싶지는 않아.

게임 휴먼은 언제 출시되느냐?

휴대폰이 충분히 커져서
이 게임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면요.

시간은 언제나 쉼 없이 흐른다.
꾸뻑
꾸벅

다 왔나? 내가 졸았군.
스읍

좀 지치시죠,
교수님?
오늘은 일 생각 말고
편히 쉬십시오.
철컥

위기는 모두가 스쳐 지나갈
작은 위기라고 생각할 때는
깊고 어둡게 닥쳐왔다.
암흑 같은 시간들….

하지만 또한 모두가 진짜 위기가
닥쳐왔음을 인정하기 시작하자…
위기는 그 두렵고 끔찍한 머리를
조금씩 거둬들였다.

낙관론자의 생각보다는 느리게.
하지만 비관론자의 생각보다는 빠르게.

푸힝. 강태호가 주식을?
총무부 떠나더니
머리가 이상해진 거야?

잘은 몰라도 위기란 걸
모두 알면 더 이상
위기가 아니잖아요.

……..

대산제약이
계속 힘들어진다는 뉴스.

신화적인 이야기는
언제나 인기가 높다.
하지만 그 신화가 무너지는
이야기의 인기는 더욱 높다.

흐음, 주가가 오른다기보단 더
떨어질 곳이 없다는 걸로 봐야겠지?
탁
타닥

타닥
탁

나츠메?

…요즘
대단하시더군요.
하지만 초기 나츠메와
누들스에서 내신
게임들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었죠?

뭐 누구 말로는 대략 그래픽도 별로고,
용량도 어정쩡하고…
음… 근데 나 게임하고 싶은데….

아, 그렇지만 최근 휴대폰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나츠메와 누들스의
게임 인기가 상종가입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들면,
그야말로 새로운 신화가 되겠죠?
아니, 이미 신화인가요?
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지분 매각 제의도 받으셨다죠?

인터뷰 그만 끝냅니다! 아아, 여기는 나츠메,
본부 나왔나? 나 게임하러 갑니다, 오버!
타악

여전하구나, 저 녀석.
그 전화를 받은 건,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아주 조금은 진정된다 싶던
3월의 일이었다.

위이이이잉

접니다, 미스터 타이거.
슬라이입니다.

슬라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네피의 진가를 알아보는
아니만이 나섰다구요.

특허와 디자인,
모든 걸 사가겠답니다.

!

슬라이가 상대방에게는
네피가 얼마나 좋은지를 말하고…
내게는 그가 지불하겠다는
금액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내내
나는 딴생각을 했다.
진표 형의 꿈,
네피를 탈 때
즐거워하던 아이들.

어때요, 강태호 사장?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아뇨. 너무 많습니다.
전 여기 적힌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에?

솔직히… 당황스럽네요.
제시한 금액보다 덜 받겠다니….

대신 부탁을 한 가지
들어 주십시오.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네피를 넘겨도,
남은 꿈은 그 분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승낙하시면 계약하겠습니다.

내게는 없는 다른 손.
내게는 없는 능력들.
스윽

이 아니만이라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해 왔던 일들을,
또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까지!

뭐냐, 이건?
스윽

세 배는
너무 많고…

그냥 두 배로 했다.
아이들 집 때문에
빌렸던 돈이다.

장난감 가게를 차렸다더니, 돈을 좀 벌었나?
내 앞에서 돈 자랑이 하고 싶어?

일찍 갚지 않아 미안하다.
요즘 어렵다는 거 알았는데도….

헛소리 마-!
타악

누가 그만 소리 해?
어렵다니? 세상을 가질
최적자가 바로 나란 건 몰라?
…….

그래, 몰랐다.
이 정도까지 약해졌을 줄은.

싸우기만 했다 생각했는데,
신세진 것도 있었네.

다음엔 다시 또 보스로서 대해 주마.
아무튼 고마웠다.

탁

아무튼 다행이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도움이….
스륵

시킨 일은 제대로
하고 있지?
소문 새어나가지
않게 해!

응. 조심하느라,
파는 아니만도
사는 아니만도 모두
익명으로 처리 중이야.
그렇지만 지금처럼
하다보면 네 주식 비중이 너무…

상관없어. 요즘 같은 때,
적자만 느는 회사를 욕심낼 미친놈은
없을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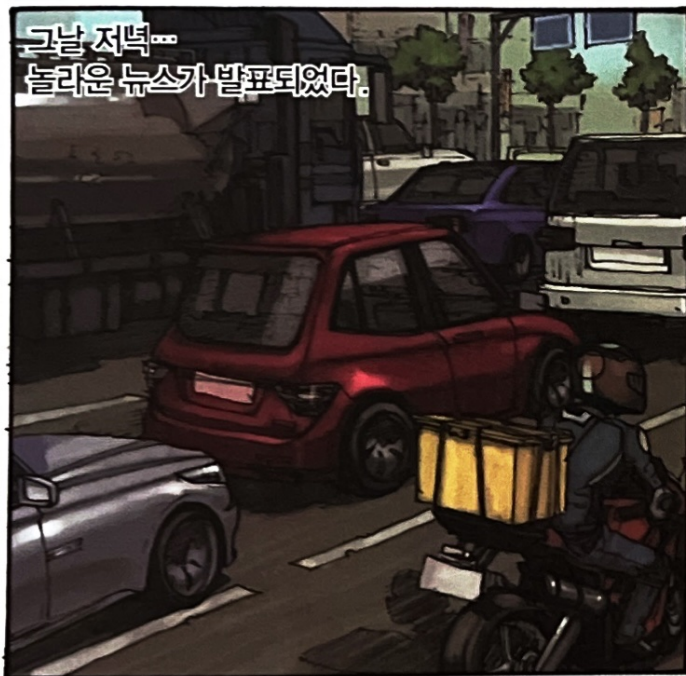
…….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위기만 넘기면,
중화 그룹에서
돈이 들어와.

주가가 떨어지는 중이니까, 들어오는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들이면 돼.

기회는 온다. 반드시.

그날 저녁…
놀라운 뉴스가 발표되었다.

!

나츠메와 누들스의 메가 마스터 나츠메.

지분의 절반 매각 결정!!

매각 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비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서 아시게 되면 기절하셔요.

그 돈으로 뭘 하실 생각이죠?

아아, 그러니까 게임도 좀 하고 남는 돈으로는…

회사를 하나 사볼까 싶은데…

어느 회사일지는,
직접 알아 맞춰 보세요.
니야옹

콰앙
빠직

지이이잉

…서, 설마 나츠메 저 자식….

혼자가 아냐. 레오 회장이 뒤에 있을 거야.
치잇. 이 간교한 백사자….

아버지께 전화 드려.
중화 그룹 후앙첸 회장님께도 연락을 취해,
지금 당장!

새로운 전쟁이다.

예전의 전쟁에서…
나는 구경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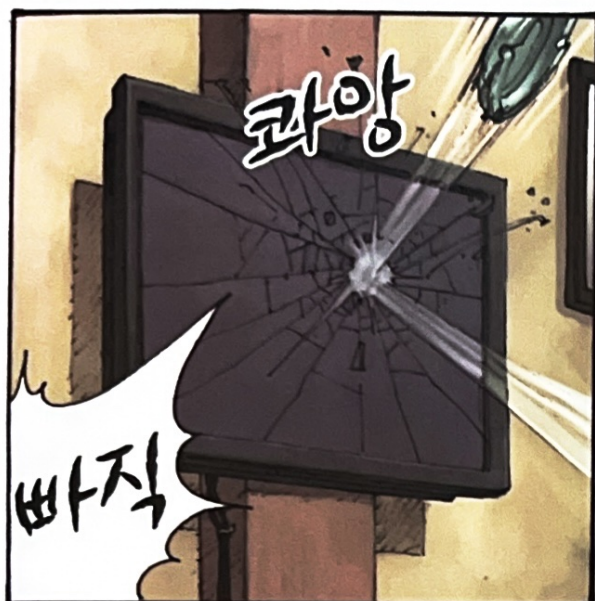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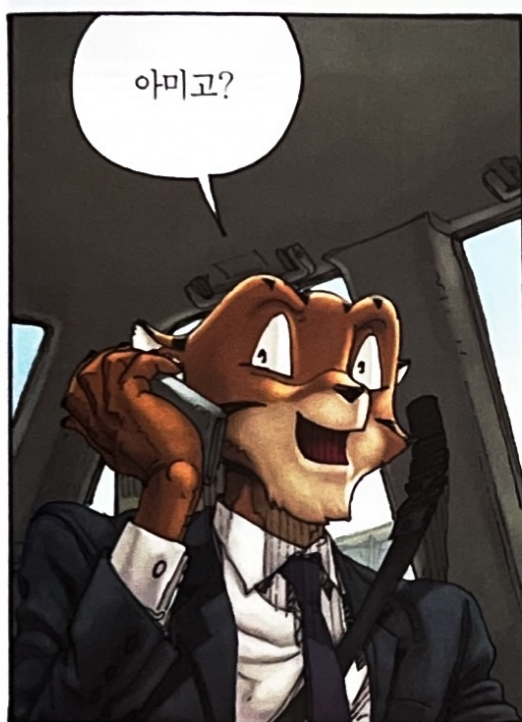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결코…

위이이잉

아미고?

쿵 쿵
쾅 콰강

오랜만에 오네.
여긴 언제나 활기차서 좋아.

너 오겠다면 말릴 아니만
하나도 없었다.

네피를 정리했다면서?

내가 손을 뗀 것뿐이야.
진표 형의 꿈은
이어질 거니까 네피는
계속 진행되는 셈이지.

이젠 뭐 할 거야?
계속 교수님 운전수만
할 건 아니지?

스스로의 꿈을 키워야지.

아! 세계정복.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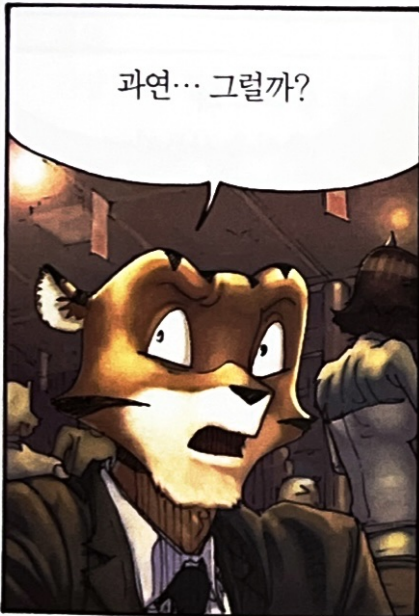
네 얘기를 해 봐.
연수원의 아미고와
지금의 네가 왜 달라져야
했는지를 말해 봐.

달라지지 않았어, 하나도.
믿어 줘.

뉴스 봤지? 나츠메 형의 선언!

혼자가 아니야.
형의 뒤엔, 아버지가 있는 거야.

과연… 그럴까?

스윽

나도 움직여
보려고 해.
도와 줘.
자

!

소문 들었어. 돈이 아니라
힘을 벌고 싶다고 했다면서?
그 정도 돈이면 어때? 파워가 될 것 같아?

…뭘 하라는 거냐?

드래곤이 뒤로 주식을 팔고 있어.
포우 교수님도 반대하는데도 무리하게
추진했던 확장책들, 기억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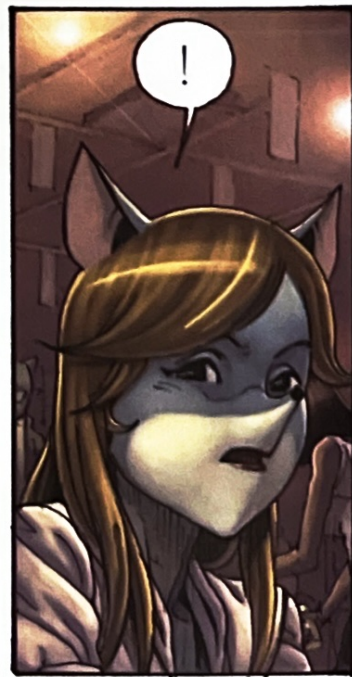
손해를 메우느라 다급해.
일부는 인수했는데, 다른 아니만들에게도
팔려 나갔어.

그 아니만들을 찾아 줘.
그리고 네 명의로 주식을 사들여.

…그, 그건….

대산을 가지는 아니만이 최적자가 돼.
드래곤이 먼저 움직였고, 나츠메 형이 움직였어.
이제 나도 움직일 거야.

불독.
가장 독한 걸로 한 잔.
아미고에게 왜 말하지 않았죠?
어떤 말 말입니까?
주식 인수한 아니만, 우리도 찾고 있다.
라는 거 말이에요.

어디 보자, 휴먼 나츠메는 게임 회사 지분을 팔아 꽤 돈을 챙겼고, 휴먼 타이거는 지금껏 번 돈을 어디에다가…
트독
톡
!
강태호.
이 녀석 설마…
정말 말할 걸 그랬네요. 레오 회장님은 나츠메의 뒤에 있지 않다. 나츠메가 누구와 손잡았는지 모르지만 회장님이 응원하는 건 미스 레이첼이다.
그리고 레이첼은 나와 세계 정복을 위한 악수를 했다. 그 말을 해줄 걸 그랬어요.
그랬다면 아미고는 적이 나츠메와 드래곤 만이 아니란 걸 알게 되겠죠.
아뇨. 그건 모르는 편이 낫겠습니다.
!

주식을 인수한 게 나라는 걸 알면,
아미고의 움직임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드래곤과 나츠메의 대응도 달라지겠죠.
모르게 합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파악

…진심…이에요?
아미고를 속이면서까지
싸울 자신 있어요?

아미고를 좋아합니다. 나츠메도 좋구요.
드래곤은 밥맛이지만 생각해보니 무조건
미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조네스의 여전사들도
남자를 미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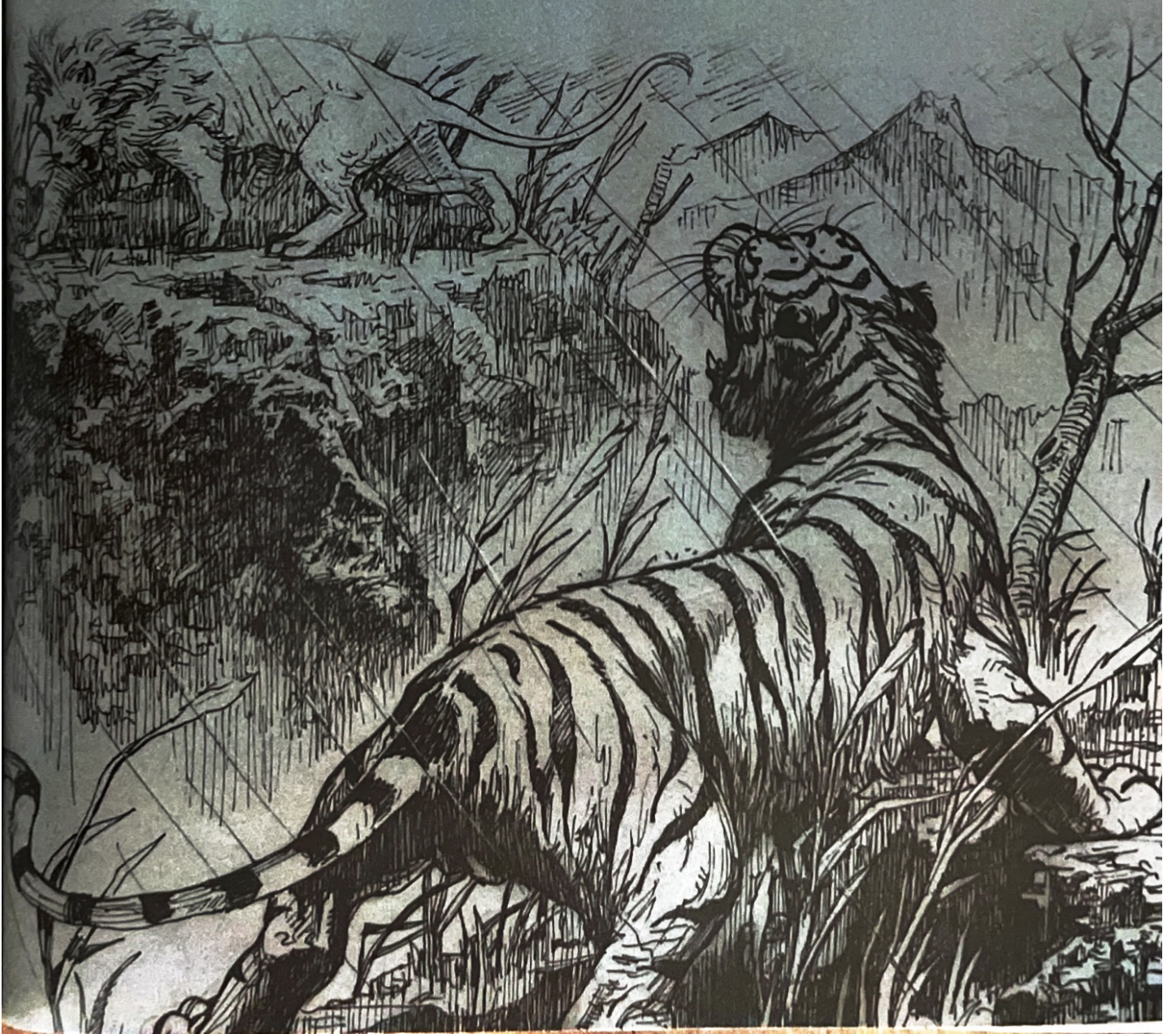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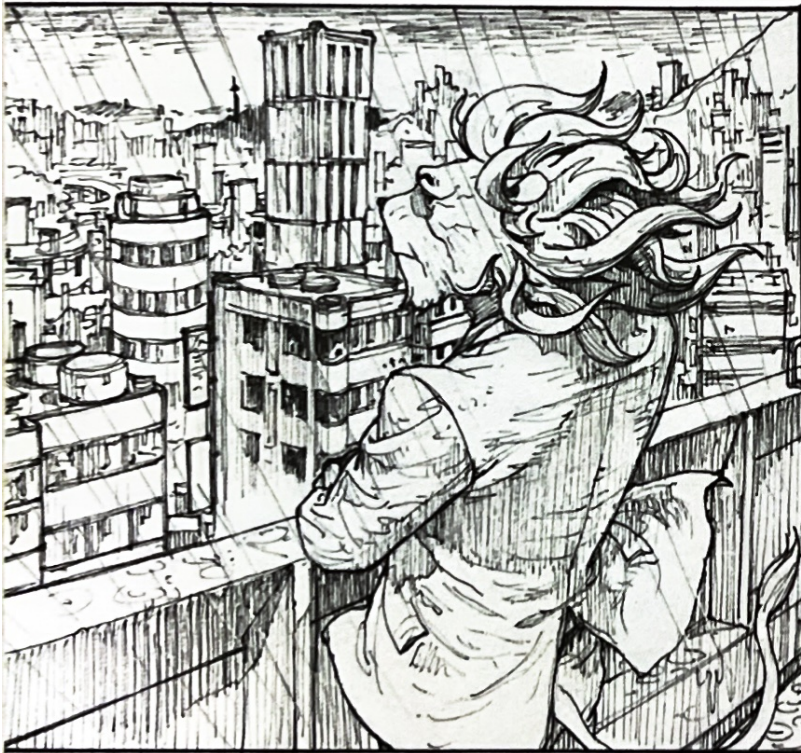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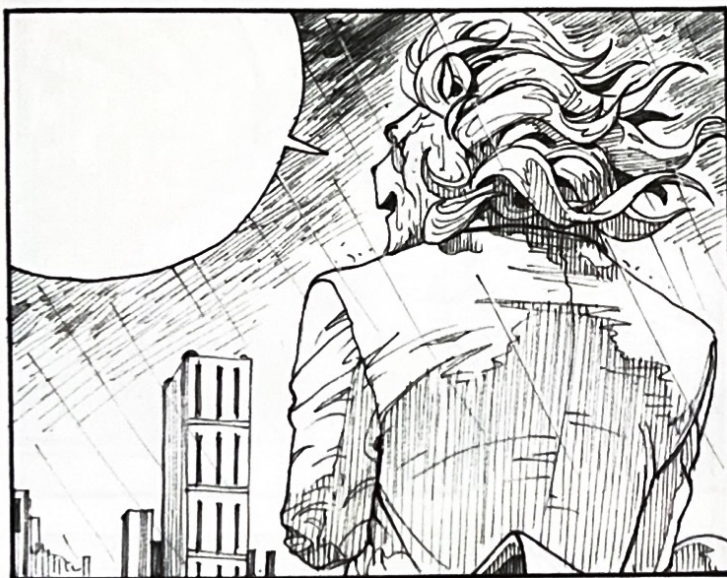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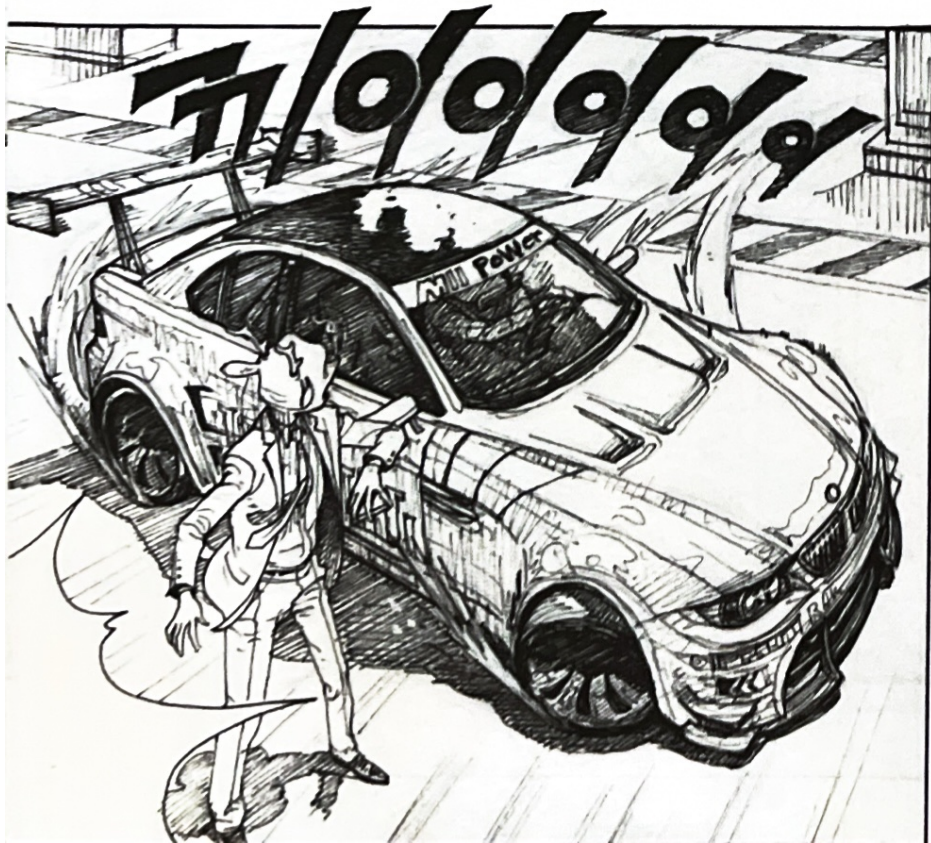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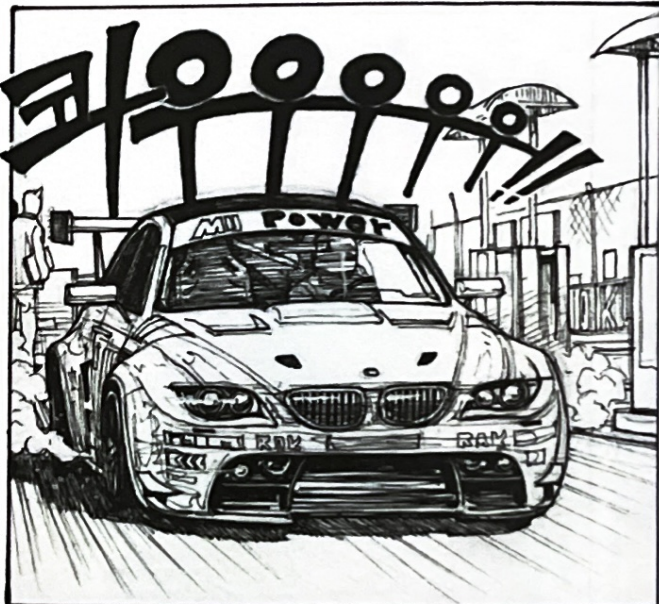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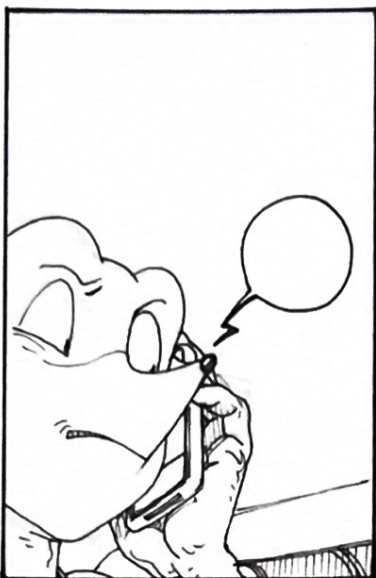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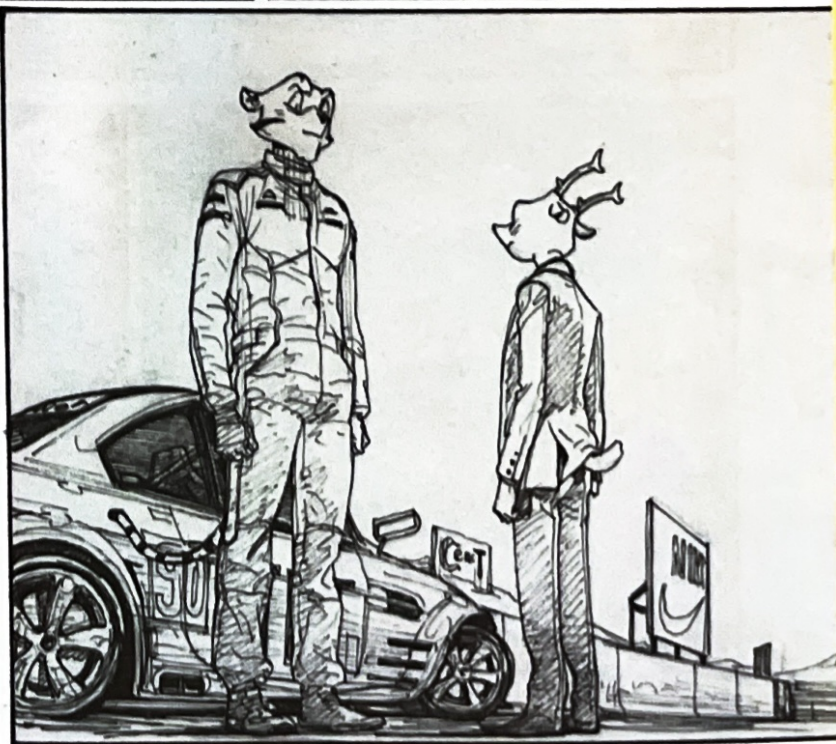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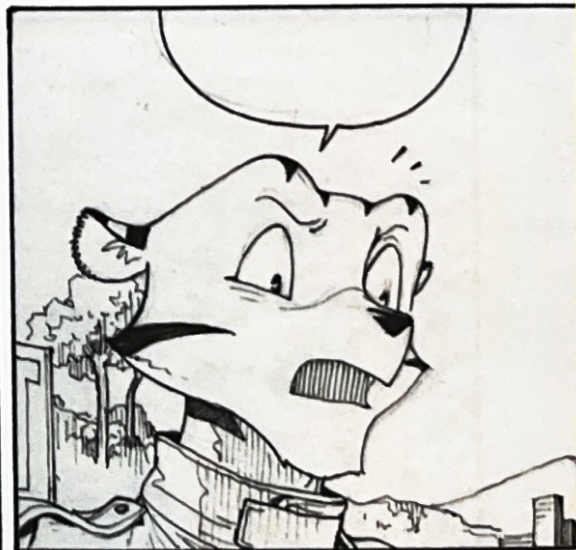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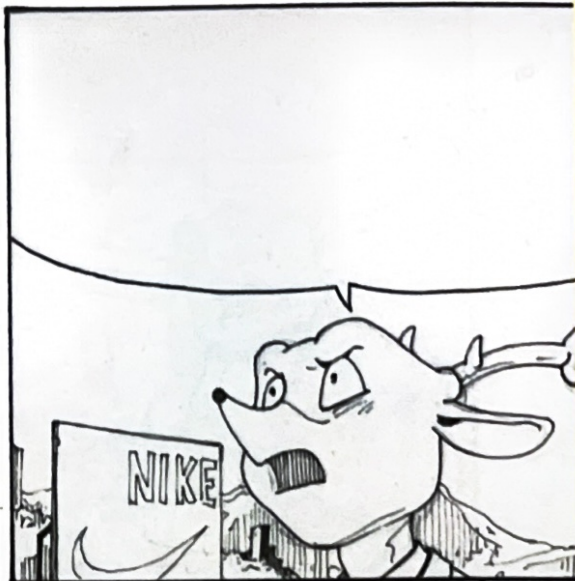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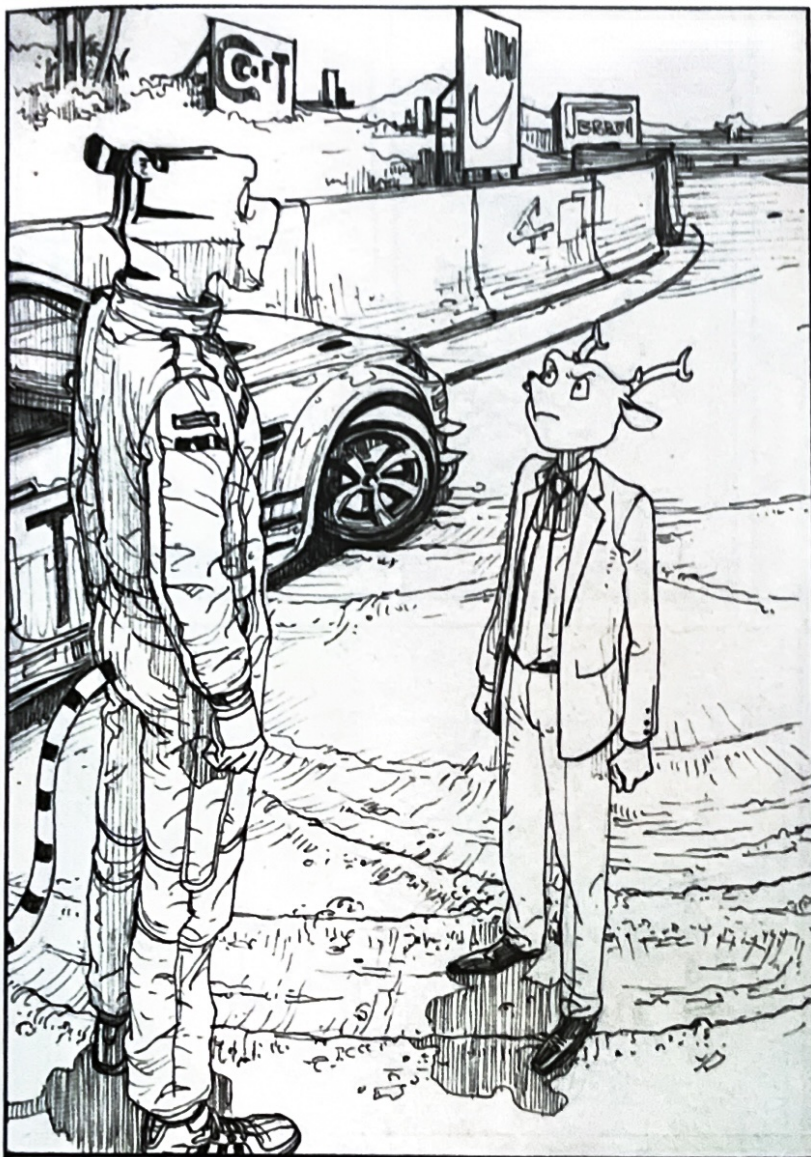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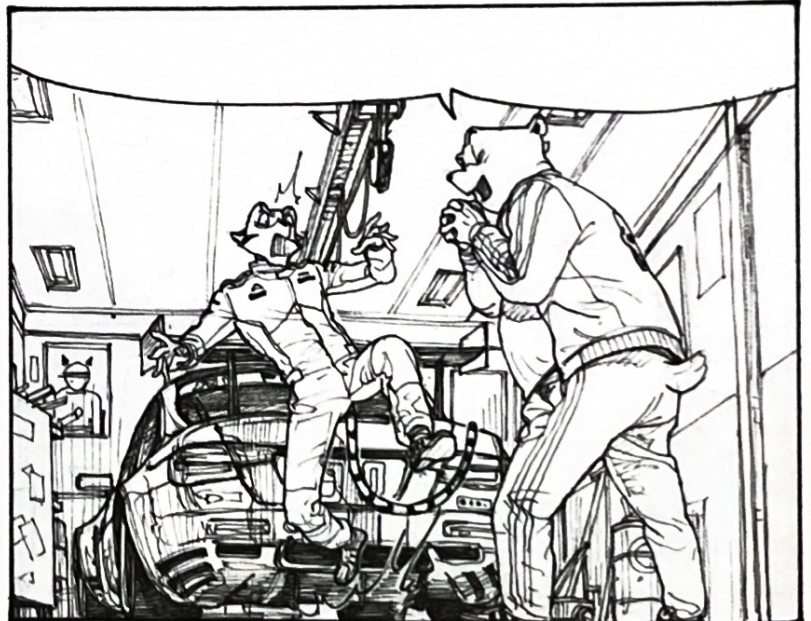
거기 떨어진 남자 전사들도 여전사들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구요.
그래도 서로 싸웠을 겁니다.

그게 운명이니까.
세상은 아마조네스입니다.

시즌 Ⅱ 완결, 다음 시즌 이야기가 7권으로 이어집니다.

2010 sketch collection 김정기

콰우우우우우!!
끼이이이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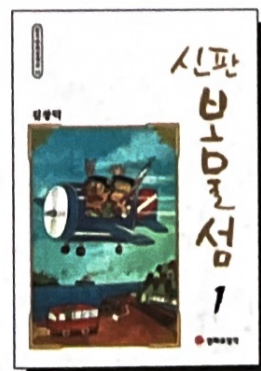
NIKE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씨엔씨레볼루션이 펴낸
2009 · 2010 고전만화 복간 프로젝트

한국만화걸작선 시리즈

한국만화걸작선 ⑩
엄마찾아 삼만리 _김종래

한국만화걸작선 ⑪
요철발명왕(1~4권)_윤승운

한국만화걸작선 ⑫
007 우주에서 온 소년(1~3권)_김삼

한국만화걸작선 ⑬
대야망(1~5권)_고우영

한국만화걸작선 ⑭
신판 보물섬(1~5권)_길창덕

아마조네스 TLT시즌 II 완결
정글의 법칙과 비즈니스의 법칙은 다르지 않다.
정글에서 빌려온 생존의 무기들은 인간 사회에서도 유효하다.
세상은 아마조네스고, 정글은 삶의 현장이니까.
발톱을 세운 호랑이와 포효하는 백사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용은 누구와 닮았을까.
값 9,500원
07650
9 788990 046659
ISBN 978-89-90046-65-9 07650
ISBN 978-89-90046-48-2 (세트)